

26일 Market Index			
↑ 코스피	6307.27	↑ 코스닥	1188.15
	(+223.41)		(+22.90)
↓ 금리 (연이자율)	3.070	↓ 환율 (원/달러)	1427.95
	(-0.054)		(-1.45)

# metro® 경제

부동산 르포  
1·29 대책 이후  
과천·용산 가보니  
08



## “모든 모바일 신제품에 AI 지원할 것”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AI, 모두가 부담없이 쓰게  
데이터 보호·통제 경험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국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AI 대중화를 위해 작년 말까  
지 4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  
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했으며 올해는 이를 두 배로 확  
대할 예정이다. 올해 출시하는  
모든 모바일 신제품은 스마트  
폰을 포함해 태블릿, PC, 웨어러블  
까지 AI를 지원하겠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  
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러  
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열린 국  
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  
며 AI를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AI를 기본 인프라  
화하기 위한 ▲접근성 ▲보편성  
▲신뢰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  
했다. <관련기사 2·3면>  
보편성은 더 쉽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노 사장은 “AI가

특정 사람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  
닌, 모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이전틱 AI가 더 매끄  
럽게 작동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  
해 운영체제 레벨에서 맥락을 이  
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AIOS를  
구글과 공동 개발해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뢰에 대해 노 사장은 “AI가  
인프라가 되려면 성능이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프라이버시  
와 보안이 근간”이라며, “삼성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와 통제 경험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전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출시 초반의 일시적 수  
요가 아닌, 사용 경험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쌓인 결과  
가 지속적으로 판매 모멘텀을 강  
화시켰다”고 설명하며 갤럭시 S

객들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  
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  
즈’로 전작의 판매 성과를 뛰어  
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올해 출  
시되는 모든 모바일폰 제품군에  
서 고르게 성장해 모바일 AI 리  
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  
25 시리즈가 전작을 뛰어넘는 판  
매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는 갤럭시 S26 시리즈로 전작을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  
이라며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  
부터 A 시리즈까지 전 제품군에  
서 고르게 성장해 모바일 AI 리  
더십을 한층 더 확고히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노 사장은 “갤럭시 S26은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  
로 카메라 경험을 한 단계 끌어  
올렸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프  
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  
다”며 “‘모바일 에이전틱 AI’라  
는 새로운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  
하는 제품으로 사용자 중심의 A  
I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  
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  
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  
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  
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  
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 기준금리 6연속 2.50%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상승률 안정적 흐름 속  
금융, 안정측면 리스크 지속”



신해 ‘3개월  
대신 ‘6개월  
후’ 전망을 경  
제전망발표회  
의(2·5·8·11월,  
연4회)마다 공  
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전원  
이 각자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확률분포)으로 제시하  
는 방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연2.50%)를 6회 연속  
동결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2.  
0%로 상향 조정했지만, 환율 변  
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지속되는 만큼 대  
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26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기로 의  
결했다.

<관련기사 4면>  
이창용 한은총재(사진)는 “물  
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 근  
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  
가는 가운데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  
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  
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  
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이날부터 조건부  
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을 개

이번 회의 조건부 금리전망에  
서는 16개의 점들이 2.50%에 가  
장 많이 분포하고 2.25%(4개)·  
2.75%(1개)에도 일부가 제시  
됐다.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가 건설  
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가 지  
속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와 양  
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에 힘입  
어 수출·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1.8%)보다 높은 2.  
0%로 제시했다.

물가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2.0%로 낮아졌고 근원물  
가 상승률은 2.0%로 전월과 같  
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 “아직도 고점 아냐”... 삼성·SK 목표주가 ‘UP’

맥쿼리, 한달새 목표가 상향  
삼성 34만원, SK 170만원  
“1분기 범용 D램값 2배 상승”  
씨티뱅크·SK증권 등 업계  
일제히 목표주가 상향조정

증권가에서 반도체 ‘투톱’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  
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맥쿼리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  
가를 34만원, SK하이닉스를 170  
만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112만원으로 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맥쿼리증권은  
“범용 D램 램드 가격은 2026년 1  
분기에 두 배로 상승할 전망”이  
라며 연중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  
로 예상했다.

씨티뱅크는 범용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8만원  
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상  
승세를 예상한 곳은 SK증권이  
다. 이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  
표 주가를 30만원, SK하이닉스  
의 목표 주가를 160만원으로 올  
렸다. 이날 증가(삼성전자 21만  
8000원, SK하이닉스 109만9000  
원)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37.61%, SK하이닉스는 45.59%  
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  
은 “AI는 기존 고대역폭메모리  
(HBM)에서 디램(DRAM)·낸  
드(NAND) 전체를 활용하기 시  
작했지만, 공급은 점차 복합적으  
로 제약되고 있다”며 “공급자들의  
낮은 재고와 AI메모리의 구  
조적 수요, 증설 여력 제약에 따  
른 가격 협상력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메모리 호황이 유동성 확장과

동반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한국 메모리 기업에 대한 재평  
가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글로  
벌 AI 관련주에서 한국 메모리  
가 가장 저평가”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30일 삼성  
전자의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7일  
목표주가를 18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올린 지 사흘 만에 다시 3만  
원(15%)을 더 올린 것이다. 삼성  
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기도  
3일 만에 95만원에서 130만원  
(36.8%)으로 상향했다.

삼성증권의 이종욱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을 161조원, 2026년 1분기 영  
업이익을 29조4000억원으로 추  
정하면서 “이익 전망 상향과 함  
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6%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그간 할인 요인이었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

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  
고 있다”며 “메모리 모멘텀의 정  
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익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  
다고 본다”고 했다. SK하이닉스  
대해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 사실  
상 출하량 성장 없이도 영업 레  
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은 삼  
성증권에 그치지 않았다. 대신증  
권은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3  
만원(12.50%), IBK투자증권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6만원  
(33.3%) 각각 상향했다. SK하  
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 조정  
도 단기간에 이뤄졌다. NH투  
자증권은 112만원에서 130만  
원, 미래에셋증권은 137만원에  
서 154만원, 대신증권은 125만  
원에서 145만원으로 올렸다.

/신하은 기자 godhe@

### 메트로 한줄뉴스



▲오세훈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  
려는 건가”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정부 檢개혁안 기대 못 미쳐...대  
폭 수정해야”

▲장동혁, ‘돌파구 마련’ 필요성에 공감...최고중  
진회의 열기로  
▲나경원, “당내분열은 곧 공멸...위기에 자기  
정치에 매몰”

▲김정은, 韓 향해 ‘영원한 적’ ‘완전 붕괴’...美에  
는 대화 손짓  
▲輿, 한반도평화위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  
이자 주가지수”

#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환호·박수… “게임체인저 등장”

🔍 르포

갤럭시 언팩 2026

1400여명 참석… 제품 체험존 북적  
보안기능·카메라 등 기대감 표해  
노태문 사장 “AI, 일상의 인프라로”

“인공지능(AI)은 일상의 인프라가 돼야 하며 그 조건은 ‘도달성·개방성·신뢰’이고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틱 AI’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DX부문 사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가 보여주는 기술적 가능성과 사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를 좁히기 위한 해법으로 ‘에이전틱 AI’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행사장에서 플래그십 신제



삼성전자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개최하고 3세대 AI 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품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생중계는 ‘갤럭시 S26 울트라’를 활용해 촬영이 진행됐으며, 행사 시작 전부터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과 인플루언서들로 가득 찼다. 약 1400명이 참석해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를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이미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대기 줄이 형성돼 있었다.

이번 행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으로 알려진 글로벌 영화 감독 매기 강과 협업해 무대를 연출한 점이 이목을 끌

었다. 오전 10시 행사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자 현장 분위기는 단순하고 조됐다. 이어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DX부문 사장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그는 “AI는 일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널리 제공되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삼성의 전체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노 사장은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며 “삼성전자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갤럭시 AI 설계의 중심에 두고 삼성 녹스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 S26 시리즈’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자 관객들은 휴대폰을 들

어 촬영했으며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관객들의 환호를 이끈 요소 가운데 하나는 프라이버시 기능과 카메라 성능이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모바일폰 최초로 측면에서 보이는 화면을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또 2억 화소 광각과 5000만 화소, 광학 줌 수준의 10배 줌 망원 카메라에 전작비 더욱 넓어진 조리개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을 지원한다.

테크 크리에이터 마일스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은 마치 필요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프라이버시 필름과 같으며 이는 ‘게임체인저’라고 생각된다”며 “또한 새로운 집이 더해지면서 울트라 S26 울트라 카메라 성능을 리뷰할 생각에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제품 체험존에도 관람객들로 붐볐다.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카메라 기능과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아울러 인물 사진을 촬영한 뒤 제미니 AI기능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이들도 보였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갤럭시 S26 시리즈. /차현정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KOSPI 6,000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439호(2026.02.25~2027.02.2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

## 삼성전자, S26 시리즈 사전판매

내달 5일까지… 11일 국내공식 출시  
통신 3사, AI 구독 등 체험해택 강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플러스,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작 대비 최고 16% 인상됐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 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 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254만 5400원이다.

갤럭시 S26+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45만 2000원, 512GB 모델이 170만 5000원이며, ‘갤럭시 S26’은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25만 4000원, 512GB 모델이 150만 7000원이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 가능한 핑크 골드와 실버 웨도우 2가지 전용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진행된다. 27일 자정에는 삼성닷컴,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CJ온스타일 등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사전 구매 고객은 다음달 6일부터 제품 수령한 뒤 개봉 가능하다. 개봉 후 삼성닷컴 앱에서 구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통신 3사도 27일부터 갤럭시 S26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신선한 제철 혜택이 가득한 SKT S26 마켓’을 테마로 문화와 미식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사전 개봉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춘천마라톤 2026 참가권, 서울제즈페스티벌 2026 티켓, 그리고 미술쟁 세프의 레스토랑 식사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KT는 온라인 전용 혜택과 가전 결합 상품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갤럭시 S26 울트라 1TB 모델을 단독 출시하며, 한정 수량으로 512GB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니 3’와 2TB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원 팩’ 요금제를 선보였다. 또 통신사 중 유일하게 3년 뒤 단말기 반납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받는 ‘보상팩’을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양성운 기자 ysw@

# 노태문 “전작 웃도는 성과 자신… AI OS로 리더십 확고히”

〈삼성전자 대표〉

**언팩 직후 美 현지 기자간담회**  
2년 가격 동결 기조조정 배경 설명  
메모리값 급등에 가격인상 불가피

S26 울트라 512GB 254만5400원  
시리즈 첫 200만원대 가격 형성  
구글과 ‘AI OS’ 공동개발 첫 적용

“삼성전자는 원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대표이사 사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열린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2년간 가격 동결 기조를 조정할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이후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서 512GB 모델이 200만원을 넘는 적이 없지만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 512GB 모델은 254만 54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상회했다.

그는 “하드웨어(HW) 부품을 줄이더라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원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

려고 한다”며 “이 같은 접근은 수율 개선 등 전반적인 제조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노 사장은 “전작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S26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갤럭시S26 판매 목표치와 거래선들의 초기반응과 관련,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는 3700만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4000만대 수준으로 높여 잡고 있다.

노 사장은 “작년 이맘때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출시 초반의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실사용 평가와 입소문이 쌓이면서 반응이 더 좋아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갤럭시 S25 시리즈도 S24 시리즈 대비 좋은 반응과 더 나은 판매 실적을 얻었다”며 “S26 시리즈도 거래선 평가와 제품 완성도, 품질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전작을 웃도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OS의 구체적 개념 및 출시 목표 일정도 언급했다. 노 사장은 “AI가 하나의 단일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OS 레벨까지 내려와서, AI 기능이 여러 기능·서비스·생

태계까지 연결된다는 개념이다”며 사용자들이 일일이 앱을 찾아갈 필요 없이 AI가 엔드투엔드로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해 줘서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AI OS라고 정의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처음 적용된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이고, 이를 시작으로 AI OS를 점점 더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다. 구글과 타이틀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사장은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달리 여전히 어렵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얘기하며 누구나 쉽게 쓰는 AI를 구현하는 것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플래그십부터 A시리즈까지 전 세그먼트에서 고른 성장을 통해 모바일 AI 리더십을 한층 확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지구를 위한 갤럭시’ 친환경 비전 공개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 소재 내재화

2030년 순환경제 강화 로드맵  
자원·물·생태 관리 목표도 제시  
갤럭시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

삼성전자가 ‘지속가능한미래’라는 화두를 던지며 친환경 비전을 공개했다. 제품 설계와 생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에서 모바일경험(MX)사업부의 환경 지속가능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의 진행 현황과 2030년까지 달성할 신규 목표를 발표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은 “삼성전자는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중심에 두고, 제품 설계와 자원 관리를 포함해 기기의 가치 창출 전반에 반영했다”며 “2030년까지 보다 광범위한 환경 영향을 다룰 수 있는 목표들로 확대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비전 선언 당

시 수립했던 ‘2025년 4대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해 모두 달성했다.

우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을 핵심 중점 과제로 삼았다. 폐어망 재활용 소재를 시작으로 현재 갤럭시 제품에는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등 10종의 재활용 소재가 투입됐다. 패키지 내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제했고 충전기 대기 전력은 제로(0) 수준에 도달했다. 전 세계 10개 모바일 사업장은 이미 ‘매립 폐기물 제로’ 인증(UL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이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달성할 확장된 새로운 목표도 제시했다. 핵심은 자원 순환,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이다.

삼성전자는 자원 순환성 제고를 위해 향후 모든 갤럭시 모바일 제품의 핵심 모듈(배터리·디스플레이·카메라 등)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줄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반도체·로봇’ 강화… 이사회 기술중심 재편

내달 18일 주총서 김용관 이사 선임안  
이사회 절반 ‘반도체·로봇’ 전문가  
HBM 로드맵·휴머노이드 신사업 추진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로봇 분야에 힘을 쏟는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최하는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용관 DS부문 경영 전략 총괄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김용관 사장이 사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10명 중 절반이 반도체·로봇 전문가로 채워진다.

앞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은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사내이사에 올랐다.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반도체연구소장 사장으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사외이사도 기술 중심으로 재편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영입했다.

2024년에는 로봇 전문가인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김 사장이 합류하면 이사회 10명 중 5명이 반도체·로봇 분야 전문가가 된다. 이를 통해 핵심 사업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 “환율·부동산 아직 안심단계 아냐... 금리동결 ‘전원일치’”

##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회견담회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 첫 공개  
3개월 전망은 시장이 스스로 판단  
올해 성장률, 작은 수준 네거티브  
IT≠非IT 부문 간 격차 오히려 확대

“환율이 어제부터 확 내려가서 좋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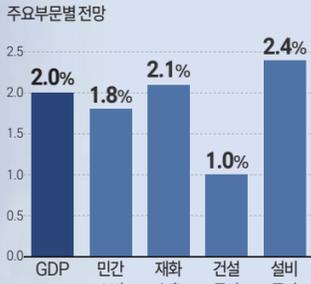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회견담회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전원일치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환율·부동산 등 금융안정 변수를 ‘속도조절’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새로 도입된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에선 2.50%에 16점, 2.25%에 4점, 2.75%에 1점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 ◆ ‘6개월·3점’ 첫 공개

이창용 총재는 이번 6개월 점도표가 기존 3개월 방식과 다른 이유로 ‘익명성’과 ‘확률분포’를 들었다. 토론은 함께 하되, 누가 어떤 점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했고,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위원이 3개의 점을 찍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이 찍은 점이 어디냐”



## 2026년 경제 성장률



## 국내 GDP 전망경로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동시에 리스크 분포까지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점 분포의 배경도 ‘조건부’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2.25%에 점을 찍은 경우에 대해 “회복세는 있지만 K자형 회복이라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가 커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6개월 뒤에는 환율·주택시장의 금융상황이 지금보다 안정돼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2.75%한 점은 “환율·유가 변동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3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는 1개월(당월 결정)과 6개월 전망을 공개하면 그 사이 3개월은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늘이 첫 시작인 만큼 앞으로 몇 개월은 이행 과정에서 3개월에 관해 힌트를 계속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몇 개월 지난 다음엔 3개월 이야기는 피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3개월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기 판단도 ‘온도차’가 핵심이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2.0%가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지난해(1.0%) 기저를 감안하면 GDP갭

은 올해에도 ‘작은 수준이지만 네거티브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갭이 클로즈되는 시점은 ‘2027년 중 하반기 이후’로 본다”고 말했다. 성장상향에도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고 밝혔다.

### ◆ 환율·주택 ‘금융안정’이 동결 근거

이 총재는 환율·부동산 우려가 1월보다 낮아졌다는 질문에 “환율이 어제부터 확 내려가서 좋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환율은 국내 요인뿐 아니라 미국 AI 주식 영향, 대법원 판결 영향, 일본 재정 우려 등 해외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했고,

“환율이 안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안심하기 좀 이른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총재는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안정 고려가 많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은은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해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정책 이후 서울 집값 오름세 진정 조짐은 있지만 장기 안정화는 거시건전성·공급·세제·수도권 집중 완화 등 일관된 정책의 장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판단의 우선순위로 “물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 금융안정을 보고, 그다음 성장을 보며 조절하겠다”고 정리했다.

환율 수급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감축·환헤지 유연화 발표가 기대를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기대 변화 속에 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팔기 시작해 최근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전제하면서도, “지나해 말 개인을 포함한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가 수급 압력과 기대를 키워 환율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성장 위한 대전환’ 필요... 반도체 쏠림 극복해야”

## 코스피 6000 시대

### ② 코스피 ‘1만 시대’ 열리면

코스피 6000시대가 열리자 시장 참여자들은 벌써 ‘질천피(지수 7000 시대)’를 얘기한다. 하지만, 코스피 장밋빛 전망을 외치기엔 한국 경제의 실상이 녹록지 않다. 시장이 이를 잘 말해 준다. 화려한 지수 랠리 이면에는 극소수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집중된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 등 다수 업종은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며 괴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주가와 경제 사이의 간극이 크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6000에서 7000, 1만 시대로 나아가려면 ‘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국가적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혁파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 ◆ 반도체 쏠림 극복해야 ‘질천피’ 간다

시장 참여자들은 ‘착시 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AI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서, 수급이 대형주로 쏠렸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49.66%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는 각각 27.54%, 15.72% 상승에 그쳤다.

이상헌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 이익 비중 측면에서 반도체가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며 “시장 전체 규모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상승 흐름 속 둔화되고 있는 실물 경기’ 관련 이미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코스피 견인 중·소형지수, 28%·16% 상승 그쳐 쏠림현상, 지수 변동성 우려 확대 요인

는 커졌으나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적어진 만큼 반도체에 가려져 이외 업종은 다소 소외되는 그림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대형주가 아니라 사실상 시가총액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8조67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8147억원 대비 165.16% 증가했다. 다만 거래대금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8조6256억원·30.09%)로 쏠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적도, 증시도 반도체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4분기 코스피200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양적으로 양호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 반도체 특수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지수 변동성 우려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업종의 충격이 국내 증시 전체 충격으로 번질 수 있으며, 반도체 대형주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 불장의 수혜를 입기도 어려워진다.

더 큰 걱정은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221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약 288조3466억원이다. 그리고 올해 220곳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460조5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30.4%(87조6248억원)에서 2026년 46.3%(213조903억원)로 훌쩍 뛰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랠리 속 우려 요인은 코스피 주도주 중심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라며 “가파른 이익 추정치 상승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지만 높아진 가격대에 따른 기술적 과열 우려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강한 주가

상승의 기반은 장기적으로 견조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기업 체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200 기업의 2026년 컨센서스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562조원으로 전년 대비 9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증익 규모 약 273조원 중 82%인 225조원이 반도체 업종에서 창출되고 있어 반도체 역할이 매우 크다”며 “다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상반기 말부터는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K자형 성장·중소 ‘한계기업’ 상태 자영업자 폐업 등 경계 경제 어려움 정부 차원 다양한 산업지원 필요

### ◆ 산업 체질 개선 없다면 코스피 미래 없다

코스피 6000에 환호만 하고 있기엔 한국 경제의 실상도 녹록지 않다. 윗목(일부대기업)만 따뜻하고, 아랫목(중소기업·자영업)은 냉기가 도는 소위 ‘K자형’ 성장을 하고 있다. K자형 성장은 분야별로 성장세가 달라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국내 임금 근로자의 70%가 넘게 일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2곳(18%)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 상태다(2024년 기준). 자영업자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자 폐업 신고 건수는 100만8282건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00만 건을 넘었다.

중소기업 투자는 제자리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1조

9793억원으로 전년(162조2793억원) 대비 6%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62조4385억원으로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은행이 상대적으로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기업·혁신기업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면서 여신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양극화의 하단을 구성하는 기업군에는 오히려 여신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짚었다.

대기업이라고 다 웃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 편중이 심각하다. 관세청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352억달러)보다 23.5% 늘었다.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1%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1년 전(18.3%)보다 16.4%포인트 확대됐다.

성장의 온기도 돌지 않는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76%로, 전일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333%로 한국보다 낮았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친 국가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예상한 성장률 전망치도 1.8%에 그친다.

이 같은 경제흐름은 증시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개미들이 1813억달러(1월말 기준) 가량을 미국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도 국내엔 소수 종목 외에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만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쏠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모두의 캔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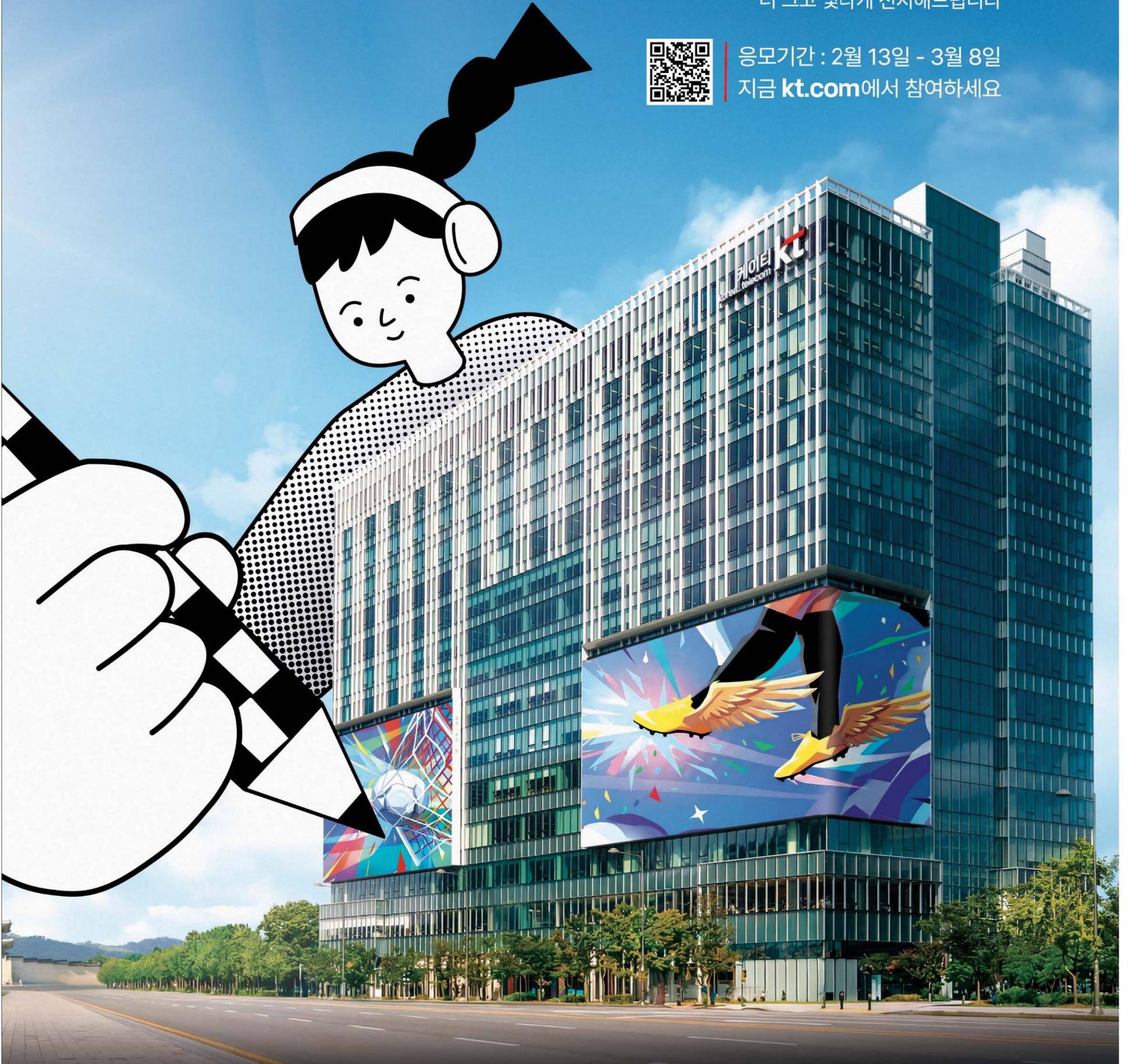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캔버스를 나만의 상상으로 채우는 [모두의 캔버스 공모전]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국내 최대의 듀얼 미디어 KT Square에서  
더 크고 빛나게 전시해드립니다



응모기간 : 2월 13일 - 3월 8일  
지금 [kt.com](http://kt.com)에서 참여하세요



# UAE 650억달러 협력 합의... 방산·원전·AI 전방위 확대

강훈식 비서실장, 이진서 전담장기적·전주기 협력 체계 전환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650억달러(약 92조8265억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의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SNS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고 25일 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칼둔 청장과 3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며 “원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

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등 전력수요 확대에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쯤 재차 방한해 진전 상황 점검 및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합의

산업통상부·민주당 당정협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주장도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이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국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내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원회 구성·법안 상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 공청회만 마무리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 분들이 (특위 회의를) 안 열 생각”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戰時)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상화 진척”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 6000 돌파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 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의 집값 하락·주택매물 증가·전세값 상승률 둔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대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6308.17로, 한국증시 사상 최초 6300선을 돌파했다. 장중에는 6313.27까지 올랐다.

/서예진 기자

## 이 대통령 “우리의 가치는 평화·안정”

북한 대남 적대적 발표에 입장 靑 “남북 평화공존 위해 계속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지속적으로 쌓여온 불신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대북 유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점심 때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 북한 발표 문안을 두고 질문이 꽤 많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차 노동당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한국의 현 집권 권력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적이고 조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환영 vs 상권 치명타 ‘찬반 혼재’… 물량 확대 사업지연 우려

〈과천〉

〈용산〉

## 부동산 현장 르포

### 1·29 대책 이후 ‘과천·용산’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과 용산 등 핵심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발표한 이후, 지역별 현장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두고 기대와 반대가 혼재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주거 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천시의회는 경마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1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 한계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과천 경마장 인근의 S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6일 “정부의 공급 발표를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며 “경마장은 30년 넘게 이전 이야기가 반복돼 온 곳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언젠가는 나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 반대 여론에 대해 그는 “대부분



용산구 이촌동 일대 노후 아파트. 용산구 한강변에는 중산시범아파트와 대림아파트 등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과천 서울 경마공원 건물에 경마장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과천 공인중개소 “경마장 이전 설 30년 반복… ‘언젠간 나간다’ 인식”  
마사회 “경마공원 인력, 상권 핵심”

용산 공인중개소 “1만여 가구 공급 최소 2~3년 이상 지연 불안 키워”

과천 시내 아파트 소유자가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과천 주택 가격은 서울 서초구 수준”이라며 “전용 59㎡ 분양가가 15억원 안팎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이니 중소형·공공임대 공급

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마장 이전이 과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전망이 갈린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이전으로 인해 고용과 세수, 지역 상권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박금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마사회는 매년 레저세와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과천시에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여하고 있다”며 “3100명 넘는 서울 경마공원 인력이 지역 상권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반응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마장이 빠져도 주택 공급과 함께 상업 시설이

새로 조성되면 소비와 유동 인구가 늘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일대에도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약 1만 가구가 배정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개발이 여러 차례 좌초된 전력이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2013년 무산됐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이 땅을 100층 규모 랜드마크

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당시 주거 물량은 약 6000가구였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서 주택 물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며 주거 비중이 크게 늘었다.

최근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만큼이나 적막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이곳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업 속도다.

이촌동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학교와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소 2~3년 이상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인근에 노후 주거지가 많은 점도 이 같은 걱정을 키우는 배경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주변에는 50년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먼저 제대로 진행돼야 나머지 주거지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제업무지구로 기대했던 이미지가 달라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 100엔당 913원… 올해들어 ‘엔화값 최저’

달러 약세에도 달러당 160엔 선 넘바  
日 총선 자민당 승리에 재정우려 상층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고, 엔·달러 환율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관세’ 발표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달러당 160엔 선을 넘보고 있다. 이달 치러진 총선에서 적극 재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도 멀어졌다는 관측에서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13.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종가와 비교해 4.8원 내렸다. 원·엔 환율은 전일 거래에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날 거래에서도 하락 폭을

확대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상승(엔화값 하락)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56.44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달 8일 이후 2주 만에 최고치(엔화값 최저)로, ‘초엔저’가 지속됐던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관세’ 발표 이후 달러가 약세를 지속중인 데도 엔화의 약세 폭이 더 큰 모습이다.

최근 엔화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적극 재정’을 내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이 멀어졌

다는 관측도 엔화값을 끌어 내렸다.

앞서 일본은행은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이후 3번째 금리 인상이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지만, 일본정부가 최근 일본은행의 신임 정책심의위원회에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인사를 임명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다카치 총리의 ‘비둘기파’ 신임 위원 지명은 디플레이션 종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인사안이 통과돼도 비둘기파 위원들은 여전히 소수”라면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하나은행-무보, 생산적 금융 확대 맞손

3년간 총 5조 규모 금융공급 목표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민·관 협력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3년 동안 총 5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목표로 민·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다이렉트보증 및 신규 출원사업 발굴을 통한 협력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운전·설비투자 자금 등 금융지원 ▲해외사업 수요 공동 발굴 및 금융우대를 통해 해외금융 참여 지원 ▲대내외 수출 경제 변수 대응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매입외환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심사를 위한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된 특별출연금, 지원대상 및 우대지원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별도로 합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일반가구 36% 주택금융상품 이용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일반 가구 중 36.4%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 이하,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주택공이 매년 실시하는 주택금융 실태조사는 ▲주택금융 이용 실태 ▲주택 구

입 의향 ▲주택금융 이용 의향 ▲보금자리론 이용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 가구 중 36.4%가 주택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비율이 22.9%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42.0%)와 광역시(40.1%)가 다른 지역 대비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의 이용률(51.9%)이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는 43.8%, 50대는 40.3%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반가구의 29.8%는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무주택가구의 55.5%는 주택을 구입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2.7% ▲경기 31.4% ▲광역시 29.4% ▲기타지역 27.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58.2% ▲40대 44.9% ▲50대 23.4% ▲60대 이상 9.8%로 조사됐으며, 또한 주택 구입 의향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구간별 응답으로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46.3% ▲6억원 이상은 25.7%로 나타났다.

/안승진 기자

## 이중근 부영 회장, 32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102명에 4억800만원 전달

최근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사진)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 약 4억 80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45개국 2847



명의 유학생이 112억 원(누적 기준)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마다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800만원으로 증액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 SK하이닉스, HBF 표준화 ‘시동’

## 〈고대역폭플래시〉

# AI 추론시대 최적화 제품 만든다

샌디스크 컨소시엄 킥오프 행사 AI 시스템 확장·TCO 절감 등 기대 안현 사장 “새로운 가치 창출할 것”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인공지능(AI) 추론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고대역폭플래시(HBF, High Bandwidth Flash)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위치한 샌디스크 본사에서 ‘HBF 스펙(Spec.) 표준화 컨소시엄 킥오프(Kick-Off)’ 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함께 HBF를 업계 표준으로 마련해 AI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 센터 기술 협력체(OCP) 산하에 핵심 과제 전담 워크스트립(특정 기술 주제

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OCP 산하 협업 체계를 샌디스크와 함께 구성해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산업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학습’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단계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AI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메모리 구조만으로는 추론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HBF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고속 메모리인 HBM과 대용량 저장장치인 SSD 사이에 위치하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인 HBF는 HBM의 뛰어난 성능과 SSD의 대용량 특성 사이의 공백을 메우며, 추론 영역에서 요구되는 용량 확장과 전

력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HBF는 AI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면서도 전체 운영 비용(TCO)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설명했다. 업계는 HBF를 포함한 복합 메모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2030년 전후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사장(CDO)은 “AI 인프라의 핵심은 단일 기술의 성능 경쟁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HBF 표준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시대 고객·파트너를 위한 최적화된 메모리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호주 질롱시 H-ACE(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에서 AS9 출하식을 열었다. 벤 허드슨(왼쪽에서 네 번째)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최고경영자(CEO)와 호주 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 해외공장 방산장비 첫 출하

호주서 AS9 자주포 3문 출하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현지 생산 기지에서 자주포를 처음 출하했다.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장비를 현지 군에 인도한 첫 사례로, K-방산 수출이 현지 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호주 질롱시 H-ACE(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에서 AS9 자주포 3문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AS9는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호주 요구 조건에 맞춰 개조한 모델이다. 올해 안에는 첫 호주산 AS10 탄약 운반차도 현지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육군에 AS9 30문과 AS10 15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출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방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공장을 호주뿐 아니라 주요 동맹국의 생산 거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AUKUS(미·호·영 안보협약체) 및 파이프라이프(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동맹) 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해외 생산기지에서 만든 자주포의 첫 출하는 K-방산 수출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호주 현지 공장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MINI “올해 11종 에디션 모델 선보일 것”

‘쿠퍼 SE 폴스미스 에디션’ 국내 출시 1회 충전거리 300km··· 제로백 6.7초

“100대 한정 사전 예약 물량이 한 달여 만에 소진되면서 추가 물량 도입을 결정했고, 올해 11종의 에디션 모델을 순차 출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폴스미스 에디션 내연기관 모델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수원 MINI코리아 본부장은 26일 열린 폴스미스 협업 모델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스미스 에디션’ 국내 출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스미스 에디션’은 MINI 실루엣에 폴스미스의 색채와 위트를 더한 한정 모델이다. 외장 색상은 인스파이어드 화이트·스테이트먼트 그레이·미드나잇 블랙 3종이며, 팔각형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와 사이드 미러 캡, 휠 캡에는 폴스미스의 고향 노팅엄에서 영감을 얻은 전용 색상 ‘노팅엄 그린’을 적용했다.

루프 연출은 색상별로 다르다. 인스파이어드 화이트와 스테이트먼트 그레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스미스 에디션’ 국내 출시 행사에서 차량이 전시돼 있다. /유혜은 기자

에는 노팅엄 그린 루프를 적용하고, 운전석 B필러 뒤쪽에 폴스미스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줄무늬를 더했다. 반면 미드나잇 블랙에는 유광·무광 블랙 대비의 시그니처 줄무늬 블랙 루프를 적용했다. 18인치 ‘나잇 플래시 스포크 블랙’ 경량 알루미늄 휠을 기본 탑재했으며, 휠 캡과 테일게이트 손잡이에 폴스미스 레터링을 넣었다. 문을 열면 바닥에 ‘hell o’ 레터링이 투영되는 프로젝션 기능도 적용했다.

실내에는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패턴 직물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JCW 스포츠 시트와 스티어링 휠 하단 스트랩에도 동일 패턴과 레터링을 반영했다. 플로어 매트에는 ‘폴스 래빗’ 그래픽을, 도어실에는 ‘Every day is a new beginning’ 문구를 적용했다. 직경 240mm 원형 OLED 디스플레이와 MINI 앱에는 전용 그래픽 테마를 제공한다.

구동계는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토크 33.7kg·m 전기모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가 걸린다. 54.2kWh 배터리 기준 복합 전비는 5.3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국내 인증 300km(WLTP 기준 최대 402km)이며 급속 충전은 10%→80% 약 30분이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와 ‘과거 어시스턴트 플러스’를 기본 적용했고, MINI 오퍼레이팅 시스템 9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만 카돈, 2존 공조, 열선 시트, 운전석 마사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등 편의사양도 갖췄다. 가격은 5970만원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LG엔솔, 배터리시장 ‘명품특허’ 승부수

지난해 10월 기준 출원 특허 8.6만건 배터리 생산 전 과정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명품특허’를 앞세워 기술 패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차별화된 특허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고품질 특허를 의미하는 이른바 ‘명품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명품특허는 우수한 기술성과 넓은 권리 범위, 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고품질 특허를 뜻한다.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보된 특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

히 초창기부터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 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Original Innovator)’에게는 라이선스 수익 창출과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작용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연구를 시작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기준 출원 특허는 8만6000건에 달한다. 소재, 전극 설계, 공정 기술 등 배터리 생산 전 과정에서 핵심 특허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생산의 A부터 Z까지 핵심 특허를 확보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회피해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효성중, HVDC 기술 국산화 비전 제시

(초고압직류송전)

컨버터 밸브 등 연구개발 성과 발표

효성중공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국산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효성중공업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산업진흥회 및 주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국산화 추진현황 점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는 그간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대용량·전압형 HVDC 기술의 국산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효성중공업은 2GW 전압형 HVDC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인 컨버터 밸브와 제어 시스템 등 HVDC 기술 국산화 현황을 발표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에 비해 전력 제어가 쉽고 계통

안정화에 유리해 재생에너지 연계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행사에서는 HVDC 분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기술협력단으로 참여한 서울대·연세대·경북대 교수는 시스템 최적화와 전력망 안정화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한국전기연구원 이종필 센터장은 컨버터 밸브 인증시험 현황 등을 설명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그간 축적해 온 전력기기 및 HVDC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LGD OLED 전 제품 휘도 유지율 100%

UL 패널평가서 밝기유지 성능 입증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즈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전 제품이 휘도(화면 밝기) 유지율 100%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휘도 유지율은 디스플레이의 밝기 유지 성능을 백분율로 평가하는 지표다. 이번 테스트 결과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은 기준 면적이 줄어들어도 밝

기 성능을 유지하며 휘도 유지율 100%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검증을 계기로 고휘도·고해상도·고색재현율 성능이 요구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우 LG디스플레이 대행사사업부장은 “휘도 유지율 100% 검증을 통해 OLED의 밝기 유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 창업기업 5년째 감소 年100만개 붕괴 우려

### 중기부, 연간 창업기업 동향

작년 113만5561개, 전년비 4% ↓  
2020년 148만4667개 정점 후 하락  
숙박·음식점·부동산 등 감소 영향  
기술기반 창업 22만1063개 '양호'

창업기업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5년째 줄어드는 등 침체에 본격 접어들어 가는 모습이다.

한때 연간 150만개에 육박했던 창업기업(법인+개인)은 자칫 100만개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은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만7344개(4%) 줄었다.

이같은 감소 추세는 정점을 찍었던 2020년(148만4667개) 이후 계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기업 숫자는 141만7973→131만7479→123만8617→118만2905→113만5561개로 내림세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111만1718(2022년)→111만1932(2023년)→106만7127(2024년)→103만298개(2025년)로 하락세가 다소 완만한 모습이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기업 숫자 통계를 내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19만177→125만6267→134만4366→128만5259개로 등락을 거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학적 이유 외에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월별로 부침은 있지만 장기추세로는 창

업이 줄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4%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금융보험업(25.9% ↑), 정보통신업(17.5%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 ↑) 등 전문 지식 분야 업종 창업이 늘었다. 하지만 전기가스중기업(29.2% ↓), 숙박음식점업(11.8% ↓), 부동산업(9.1% ↓) 등의 감소가 전체 숫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감소는 외식산업 경기 침체, 카페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특히 음식점업 창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2024년 대비 2025년 현재 한식일반음식점은 6만3217→5만5605개, 커피전문점은 1만8887→1만5504개로 각각 하락했다.

창업기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술기반창업은 양호한 모습이다. 지난해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22만1063곳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술창업은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1%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 9.3%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편 작년 연령대별 창업 동향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줄었다. 창업 감소율이 가장 적은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대비 2.1% 하락하는데 그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현대제철, 탄소 20% 줄인 강판 양산

### 전기·고로 복합공정 20% 감축

현대제철이 전기로 운영 노하우와 고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고로 쇠물을 배합하는 '전기·고로 복합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해 기존 고로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20% 줄인 탄소저감 강판을 개발하고, 지난 2월부터 양산을 시작해 판매 확대에 나섰다. 2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당진제철소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생산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복합 공정 가동에 앞서 공정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고객사 평가와 강종 승인 절차를 병행해 양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탄소저감 강판 2종을 포함해 총 25종의 강종 인증을 완료했다.

이번 양산 체제 가동은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 업체의 탄소저감 로드맵에 맞춘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탄소저감 철강재를 국내 및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이며,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 강판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전환해 적용 강종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metro

## 김기문 “中企 전성시대, 함께 열어가자”

중기중앙회, 여의도서 정기총회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0명 참석  
사업계획·예산 등 5건 안건 의결  
우수 협동조합 선정… 유공자 포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6일 “올해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코스피가 5000을 찍고 6000을 돌파했고 지수 상승률은 세계에서 1등이다. (지



난해) 수출도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어 일본을 제치고 5위가 되는 등 대한민국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 아쉬운 점은 이런 성과들이 일부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사업 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정관 개정안 ▲이사회 위임안 ▲임원 선출안 등 안건 5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맹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연식공공업협동조합 ▲전북공업협동조합 ▲포천기산협동조합이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 최진식 “성장사다리 중심 중견기업, 책무 다하겠다”

중견련, 신라호텔서 정기총회  
사업계획·예산안 등 안건 의결  
‘회원사 현장 방문’ 프로젝트 추진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26일 “개별 기업의 ‘이기’를 벗어나 벤처와 중소기업 발전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의 ‘중심’으로서 책무를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 중견련 정기총회'에서 “국가 혁신 어젠다를 선도하는 대표 경제단체 위상 강화”를 목



표 제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재점화된 관세 혼란을 극복하고 코스피 활황,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낭보를 기업 펀더멘탈 강

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견기업계는 물론 경제대도약을 위한 산업계 전체의 총력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회복시킬 법·제도·정책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승호 기자

## KG에코솔루션, 바이오 선박유 사업 확대

내달 울산 신공장 본격 가동  
글로벌 BMF 생산·수출거점 구축

KG에코솔루션이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에 맞춰 바이오 중유·선박유(BMF)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 수요 대응하며 실적 상승세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KG에코솔루션은 다음달 울산 신공장 가동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선박유 시장을 선점,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배 높은 1875억원으로 잡았다.

KG에코솔루션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산공장 가동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1월 취임한 박생근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

박생근 대표이사는 “2026년은 내수 중심 사업 구조에서 글로벌 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곡점”이라며 “외형적인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구조적인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KG에코솔루션의 실적은 밀양공장 단일 사업장에 기반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누적 별도 매출은 750억원이며, 연간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제주 발전소 등에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납품하는 등 내수 사업 비중이 큰 상황이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생근 KG에코솔루션 신임 대표가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울산 신공장은 글로벌 BMF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26년부터 EU ETS(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해운업에 100% 적용되면서 해운사의 친환경 대체연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중기부, 실패 경험을 ‘성공 자산’으로 전환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운영협의회 개최  
‘재도전응원본부’ 본격 가동  
정보·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을 ‘성공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재도전응원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20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26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열고 올해 재도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응원본부의 첫 공식 운영 협의회로, 총괄 본부를 맡고 있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주재하고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중진공과 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이 함께 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재기를 준비하는

기업인에게 정보 제공·네트워킹·정책 연계를 종합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참석자들은 올해 재도전 지원 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검토했다.

중기부는 재도전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기 문화 정착을 위해 ▲재도전 사례를 확산하는 실패콘서트 ▲실패 경험자와 일반인이 공감하는 힐링캠프 ▲폐업·재창업 경험을 나누는 재도전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Y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 게임업계, 콘솔·모바일 축 '수익성 중심' 재편

대형 프로젝트 개발비용 등 급증 성장보다 자본 회수 가능성 우선  
폴란드, '콘솔·AAA' 전략 거점  
튀르키예, 모바일 포트폴리오 확장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본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폴란드와 튀르키예를 콘솔·모바일 전략 거점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게임 산업의 투자 문법이 달라지고 있다. 성장 스토리에 무게를 두던 자본이 최근에는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면서, 제작 효율과 리스크 분산 구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 산업은 구조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AAA급 콘솔·PC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대 개발비가 투입되고, 출시 직전 글로벌 마케팅 비용이 집중된다. 플랫폼 수수료, 현지화, 서버 인프라, 광고 집행 비용까지 감안하면 출시 전 현금 소모가 급격히 늘어난다. 최근 투자 시장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자본은 성장 가능성보다 회수 가능성을 우선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폴란드와 튀르키예가 서로 다른 전략적 의미로 재조명되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폴란드 터키 국기 이미지.

있다.

폴란드는 콘솔·PC 기반 AAA 제작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다. 폴란드의 비디오게임 개발사인 체데 프로젝트(CDProjekt)를 통해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연구개발(R&D) 기반 IP 수익에 저울 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와 세액 공제 정책으로 제작 유인을 제공한다. 콘솔·PC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역시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폴란드 게임산업 현황' 보고서도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폴란드가 콘솔 중심 제작 구조와 세계 지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전략적 제작 허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자본 흐름과 맞물린 구조적 변화로 해석한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크래프톤이다. 크래프톤은 2021년 폴란드 개발사 피플 캔 플레이 지분을 인수하며 글로벌 콘솔·PC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는 단기적 확장이 아니라 장기 AAA 파이프라인 확보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를 최근의 '동유럽 러시'로 보기보다, 수년 전부터 제작 거점을 염두에 둔 선제적 판단으로 본다.

튀르키예는 또 다른 축이다. 모바일·캐주얼 게임 중심 제작 허브로 성장했다. 2020년 미국 게임사 징가(Zynga)

가 튀르키예 피크게임스(Peak Games)를 약 18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현지 모바일 게임 산업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중심 개발 구조와 상대적으로 유연한 비용 체계는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강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가 콘솔·AAA 전략의 거점이 라면, 튀르키예는 모바일 포트폴리오 확장의 접점으로 가능하다. 콘솔과 모바일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제는 성장 스토리만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며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는 네트워크형 구조가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전했다.

결국 변화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자본 구조다. 성장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이동한 투자 환경 속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폴란드와 튀르키예를 통해 콘솔과 모바일 양축 전략을 재정비하고 리스크를 분산한다.

'투자만이 살길'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그 투자는 외형 확장이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재편에 가깝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SKT AI-RAN 실증 성공

SK텔레콤이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기지국 기술 'AI-RAN'을 개발하고, 실증망에서 시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AI-RAN은 하나의 장비에서 통신 기능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기지국 기술이다. 통신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AI 서비스를 병행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실증에는 노키아와 국내 통신장비 기업 HFR이 참여했다. 엔비디아 GPU 기반 범용 서버를 활용해 다양한 AI-RAN 장비 구조를 개발·검증했으며, GPU가 처리하는 통신 기능 범위에 따라 여러 형태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노키아와는 AI 서비스를 처리하는 GPU와 통신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통신 전용 가속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실외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KT MWC26서 '민:음K' 개발과정·성과 소개

KT가 'MWC26' KT 부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민:음K(Mi:dmK)'의 개발 과정과 기술 성과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AI 평가 지표를 통해 검증된 성능과 한국 기업 환경에 특화된 독자 AI 전략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KT는 국내 기업과 공공 환경에서 실제 업무와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I 모델 구현을 목표로 민:음K 개발을 추진해왔다. 통신·미디어·금융·공공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대규모 고객 접점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핵심 업무에 활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서현 기자

## LG U+ 알파키·U+SASE 등 차세대 보안 기술 공개

LG유플러스가 'MWC26'에서 AI 확산과 함께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기술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AI 기반 분석과 암호 기술 고도화, 미래 위협 대응을 아우르는 보안 기술을 통해 통신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고객별 AI 이상 감지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계정 관리 솔루션 '알파키', AI 통화연에 적용 예정인 동형암호 기술,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한 광전송장비, 생성형 AI 환경에 대응한 차세대 보안 플랫폼 'U+SASE'를 선보인다. 이들 기술은 침해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엉덩이의 힘’”

##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울대 전기학위 수여식 축하  
급변·경쟁 속 '집요한 성실함' 강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할 힘으로 '엉덩이의 힘'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일수록 요란함보다 집요한 성실함이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80회 전기 학위 수여식 축하사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엉덩이의 힘"이라고 26일 밝혔다.

그가 정의한 엉덩이의 힘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남들이 지루해하고 불안해하며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기어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80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뉴시스

자리를 지키고 앉아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성실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상은 요란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결국 지루함을 견디는 미련한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며 "깊이 몰입하다 보면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IT 산업이 급변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본질에 대한 몰입과 우직한 끈기가 결국 차이를 만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2000학번인 그는 2005년 네이버에 입사해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조직에서 근무했다. 이후 연세대와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2년 3월부터 네이버를 이끌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한 이력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완벽한

설계와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털어놨다. 공대에 입학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다른 전공을 기웃거렸고, 원하던 직장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네이버 입사 후 첫 부서였던 홍보실에서는 보도자료를 수차례 다시 쓰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도 했다.

그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기회를 만났다"며 "정해진 트랙이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하는 날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힘만 남겨두라"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증명해 낸 지독한 성실함을 믿어라. 그것이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최빛나 기자

## 크래프톤, 패러다임 전환기 맞춰 비전·핵심가치 개편

'미지의 영역 개척' 비전 슬로건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미래가치 확장  
'관점의 전환' 콘셉트로 CI 전면개편

크래프톤이 게임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신규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면 개편했다. AI 확산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조직 정렬과 장기 성장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크래프톤은 26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를 열고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핵심가치, CI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변화의 시점에서, 한 방향으로의 조직 정렬'이란 주제로 비전을 공개했다. 새 비전은 "우리는 게이머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상상력과 기술로 전 세계 팬들이 잊지 못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개척한다"는 내용이다.

비전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은

'미지의 영역 개척'이다. 게임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기술 영역에서 기존의 경계를 넘어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규 비전을 기반으로 크래프톤은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 전략과 AI 기반 미래 가치 확장에 속도를 낸다. 작은 규모의 빠른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경쟁력이 입증된 프로젝트를 스케일업해 대형 프랜차이즈 IP로 육성하는 구조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사업 기회도 적극 검토한다.

비전 실행을 위한 5가지 핵심가치도 새로 정립했다. ▲ 담대한 목적을 향한 도전 ▲ 철저히 준비된 시도 ▲ 상상력과 기술의 결합 ▲ 팬 중심 사고 ▲ 글로벌 사고와 감각이다.

CI도 전면 개편했다. 새로운 CI 콘셉트는 '관점의 전환(Perspective Shift)'이다. 익숙한 시선을 전환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컬러는 레드 계열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한다. /최빛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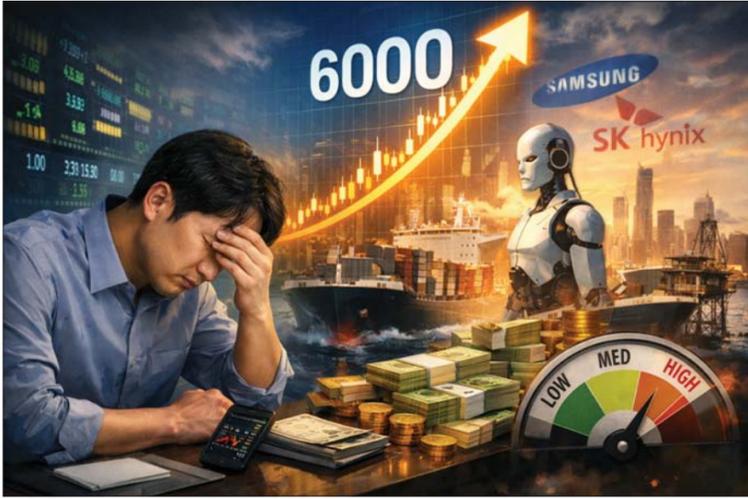
# 반도체 강세에 코스피 고공행진... 낙관론 속 '신중론' 부상

올해 'KRX 반도체 TOP15' 30% ↑ 미국과 협력 추진 '조선 분야' 유망 한국형 공표지수 오르며 과열 경고

# 직장인 김병덕(가명·37) 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다. 그는 지난해 6월 6만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을 3000만원어치 샀다가 11월 10만2300원일 때 모두 팔았다.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20만원을 가볍게 넘긴 상태다. 김씨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면서 그간 증시를 견인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조선 분야 종목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분야의 우량주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연 2%대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코스피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 '상투를 잡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조정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저점을 기다리는 투자자로서는 야속한 국면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 돌파 이후에도 반도체와 AI, 로봇, 조선 분야 대형주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가 20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산업과 연관된 우량 반도체 기업이 포함된 테마 지수 'KRX 반도체 TOP 15'는 올해 들어 3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씨티(Citi)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을 웃도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며 코스피 상단 7000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선보인 후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현대차는 올해만 주가가 80% 오르며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정부,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 분야도 유망 업종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세계 혜택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배당주 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그 경우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 역시 둔화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사상 최고치인 1억150만3715개에 달한다. 주식 계좌 수

가 한국 인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셈이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증권 계좌를 의미한다.

23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도 108조2291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20조원 넘게 늘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같은 날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1조712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27조4207억 원) 대비 4조원 넘게 늘었다.

하지만, 과열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형 공표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1포인트(0.40%) 뚝 51.31을 기록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차입 투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테슬라 밀리고 MS·구글·한국 ETF 떠올라

**해외주식 Click**  
 종목 교체·레버리지 전략 병행 미국 주식 보관금액 4%대 감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가 주간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나 데 이어, 미국 상장 한국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까지 한 달 새 감소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5일)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5위에 테슬라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ETF'로 9311만달러를 기록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6807만달러 순매수로 2위, 알파벳이 5823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아마존과 나스닥 100 ETF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보관금액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4일 기준 미국주식 보관금액 1위는 테슬라로 258억9951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4일 299억9743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40억달러 줄어 13% 넘게 감소했다.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80억5769만



ChatGPT로 생성한 서학개미 자금 흐름 변화. 테슬라 매수세가 주춤한 사이 MS·알파벳과 반도체 레버리지 ETF, 미국 상장 한국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

달러에서 176억7233만달러로 소폭 줄었고, 팔란티어도 감소했다. 반면 알파벳은 64억7895만달러에서 74억5404만달러로 늘며 3위로 올라섰다. 애플과 인베스코 QQQ ETF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매수세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Y ALL 3X ETF)'와 '한국 추종 ETF(iShares MSCI South Korea ETF)'를 순매수 상위권에 올렸다. 이달 25일까지 코스피가 44.4%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

률 1위를 기록하자, 미국 시장을 통해 한국 지수를 레버리지로 담거나 달러 자산 형태로 편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계좌와는 별도로 해외 계좌에서 한국 지수를 매매하거나, 환율·세제·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변동 속에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도 한 달 새 줄었다. 이달 24일 기준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은 1649억1616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24일 1723억4689만달러에서 약 74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한 달 만에 4% 넘게 줄어든 셈이다.

/허정윤 기자

## 외부감사 대상 4만2891곳... 1.8% 증가

금감원, 외감 대상 회사 현황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4만2891사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감사인을 당국이 직접 지정하는 직권지정 회사도 8.8% 늘어나 지정회사 비율이 4.6%로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사로 전년(4만2118사) 대비 773사(1.8%) 증가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2.2%)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며 확대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주식회사가 3만9467사로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인 2752사(6.4%), 유한회사는 672사(1.6%)로 집계됐다.

감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외부감사 대상 중 3만3580사(78.3%)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다. 4564사(10.6%)는 감사인을 변경했고, 4747사

(11.1%)는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올해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은 27.0%로 비상장사(9.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주기적 지정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6.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기적 지정회사는 525사로 전년(530사)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직권 지정회사가 1446사로 전년(1329사) 대비 117사(8.8%) 늘면서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6%로 전년(4.4%)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75사로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 381사, 재무기준 미달 196사, 관리종목 156사 순이었다.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을 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이 1045사(53.0%)를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

## “손실 위험 먼저”... ELS 판매관행 개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손실 위험을 먼저 설명하도록 판매 관행 개선에 나선다. 손익을 한 번에 제시하는 기존 설명 방식 대신 손실과 이익을 분리해 제

시하고, 저위험 상품과의 비교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ELS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행사에는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설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 코스닥협회, 이동현 신임 수석부회장 선임

정기회원총회서 5대 경영목표 확정

코스닥협회는 26일 '제27기(2026년도)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임 수석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했다.

협회는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의 나침반, 코스닥!'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주요 경영목표로 ▲코스닥규제 환경완화 및 기업가치 제고 기반 확립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지원 서비스 강화 ▲대내외 네트워크 확장

소통활성화를 바탕으로 협력 기반 강화 등을 선정했다.

협회 수석부회장으로는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사진)을 선임했으며, 박상순 지엔비에스 에코 대표이사, 김창균 아이지넷 대표이사 회장 등 총 2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강재구 오에스피 대표이사,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 등 총 2명을 감사로 선임했다.

/허정윤 기자



# 소득 늘었지만 소비는 '뒷걸음' 세금·이자늘며 처분소득 체감 ↓

데이터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  
월평균 소득 542만원, 전년비 4.0% ↑  
물가부담 등 연간 소비지출 0.4% ↓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이 늘어났으나, 연간 기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외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이자부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0% 증가했다.

근로소득 336만9000원으로 3.9%, 사업소득 112만4000원으로 3.0%, 이전소득은 76만6000원으로 7.9% 각각 늘어 소득 상승을 이끌었다.

가계지출은 408만1000원으로 4.4%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300만8000원으로 3.6%, 비소비지출은 107만3000원으로 6.5% 각각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434만9000원으로 3.4% 증가했고 흑자액은 134만원으로 2.7%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부문별 편차는 컸다. 교통·운송(10.4%), 기타상품·서비스(10.9%), 식료품·비주류음료(5.1%), 음식·숙박(5.0%) 등은 증가한 반면 보건(-3.3%), 교육(-2.4%), 주거·수도·광열(-0.4%) 등은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구입과 운송기구 유지·수리 등 교통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고 외식과 숙박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입원서비스 등 의료 지출과 정규교육 및 사교육 지출은 감소해 필수 지출 항목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뉴스시

였다.

비소비지출 증가도 두드러졌다. 경상조세와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등이 늘면서 전체 비소비지출이 6% 이상 확대됐다. 이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가능한 자금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연간 기준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0.4%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연간 지출이 줄어든 것은 물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도 실질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중·고등학교 생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또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봄 인력 사용이 감소하면서 가사서비스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15.8%), 식료품·비주류음료(15.3%), 주거·수도·광열(12.3%), 교통·운송(11.5%) 순이었다.

4분기에는 전년도 3분기였던 추석이 10월로 이동하면서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해 근로소득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가계 여건이 일부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서지현 과장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해 총소득 상승을 이끌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 본격 착수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코미르)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미르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동향 ▲재자원화 실적 및 추진계획 ▲신설 국고보조사업 안내 등이 소개됐다.

정부가 제시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타넘)다. 이들 광물은 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한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핵심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재투입하는 활동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지역주도 산업단지 AX 본격 시동

산업부, 창원서 M.AX 11번째 분과' 출범  
산단별 '대표선도공장'·테스트베드 구축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AI)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산단 AX사업·정책 총괄 조정 ▲기존 10개 M.AX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연계 ▲산단별 우수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에는 10개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참여한다.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 AX의 실행조직으로, 이날 창원 MINI 얼라이언스가 첫 출범했다. 향후 반월·시화, 명지·녹산, 울산 미포, 전북 군산, 전남 여수·대불, 충남 천안, 강원 후평 등으로 순차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AX 실증산단' 10개 소(반월·시화·창원·명지·녹산·울산·천안·

군산·광주첨단·여수·대불·강원후평)를 지정해 산단별 앵커기업 대상 'AX 대표선도공장' 구축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에 나선다. 실증 성과를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전국 산단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단지 AX 추진전략'도 발표하고, 전국 1341개 산업단지를 제조 AX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 앵커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AI·로봇 기업, 대학, 연구소가 결집한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 메가특구와 결합한 혁신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올해는 AX 실증산단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핵심공정·제조 난제·제조지식(암묵지) 분야 AI 모델 수요를 발굴해 공동개발·확산하고,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매칭을 위한 'M.AX 카라반' 현장 상담회와 세미나를 정례화한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현장수요 기반 R&D 및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위, 쿠팡 '납품갑질' 과징금 21.85억

목표 마진 달성위해 단가 인하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부담시킨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 이익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GM(Gross Margin,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해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면 광고비, 쿠팡채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

도록 요구했다. 이 역시 발주 중단·축소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3487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또 법정기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채험단 프로그램에 따른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채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중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에서 고객채험단이 실제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5억3679만원 상당)가 발생했지만,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소멸위기 10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식품부, 지역상권 회복 마중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26일 개시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거주민은 이달 26~27일 양일에 걸쳐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장수를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지급 일정은 26일 전북 장수군, 순창군, 경북 영양군, 27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남 남해군이다. 전남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 포함,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장수군은 첫 지급을 기념해 군내 상점들이 판매부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장수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상품권' 사용가능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국형 수산자원관리 AI 플랫폼' 구축 추진

해수부,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가 '한국형 수산자원관리 인공지능(AI)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의 AI 모델인 단일어종·단일해역에서 더 나아가, 해양·기후·수산자원 등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다이어종을 비롯해 복합해역 및 장기 어장환경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등 AI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인 자원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기후·수산·해양·환경·변동 등 수산자원 데이터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수산자원의 조사부터 분석, 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급감 및 이동위험종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근해 어항 변동을 실시간으로 예측·검증하는 모의 실험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딱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 제작PD 박민서 | 컴퓨터매니저 소우현

주최·주관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 서울, 정비사업 조기착공 85개구역 공개... 3년간 8.5만호 공급

2028년까지 착공 로드맵 제시  
'신속착공 6종' 패키지 가동  
규제 완화 정부에 지속 건의  
이주비 500억 긴급 용자 지원

서울시가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며,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총 8만5000호를 조기 공급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 3년간 85구역서 8.5만호 공급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규모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



Chat GPT로 생성한 서울 도심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중인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선별했으며,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 단축 ▲해체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구조·굴토 통합심의 ▲공사

단계별 기한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 적용 ▲공사비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검증 선제 시행 ▲'정비사업 공정 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2027년~) 등이 포함된다.

## ◆ 8만5000호, 연도별 착공 지역은

2026년에는 한남3(용산·5970호), 갈현1(은평·4116호), 중계본동 백사마을(노원·3178호), 방배13(서초·2228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24곳에서 약 3만5000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은평·동작·서초·노원 등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조기 착공 물량이 집중됐다.

2027년에는 이문4(동대문·3502호), 노량진1(동작·2992호), 불광5(은평·2387호), 신월곡1(성북·2206호) 등 중대형 정비사업 31곳에서 약 3만40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다수 포함돼 도심과 강남권을 아우르는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개포주공6·7단지(강남·2698호), 상계2(노원·2200호), 미아9-2(강북·1758호), 봉천14(관악·1500호) 등

30곳에서 약 1만6000호가 착공된다. 대규모 단지와 외곽 생활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공급이 분산되도록 구성됐다.

## ◆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용자 지원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용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용자는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용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해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교 '역사 콘텐츠 비평' 과목 신설  
암기 중심서 탐구·토론 수업으로 전환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교 역사교육 전반의 틀을 손질한다. 아울러 암기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탐구·체험·토론 중심으로 전환해, 역사 왜곡·부정에 흔들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된 역사 부정·왜곡 담론이 교실 수업으로 유입되며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한다는 현장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다원적 관점에서 역사적 쟁점을 탐구·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환경과 교



/유도이미지

육과정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교실 수업의 기준으로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을 확

대하고,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 안내, 2027년 사례집 개발·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의 시수·구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한다.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주제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선택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개정 절차는 2026년 상반기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2030년 새 교육과정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학생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2027년 9종으로 확대하고, 근현대사료·교육자료·체험자료를 묶어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도 2027년 구축한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박세현 제17대 총장 취임

AI·융합교육 기반 대학 체질개선 강조

중앙대학교가 지난 25일 박세현 제17대 총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사진)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세현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2년 임기의 총장 직무를 시작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 철학을 '전체가 움직이는 그룹'으로 제시하며 협업과 연계를 통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다빈치캠퍼스와의 상생 전략을 통해 캠퍼스 간 시너지를 높여준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박 총장은 '메타 밸류'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워 대학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두산그룹과의 협력을 비롯한 산학 연계를 확대해 산업·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박 총장은 중앙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동대학원 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9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임용됐으며, 교무처장과 BK21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지능형 에너지산업 융합대학원 사업단장, 탄소중립경제연구원장, ESG ICT 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중앙대는 "박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AI·에듀테크 가이드라인 마련

'인간 중심 AI 교육' 원칙 제시  
생성형 AI 안전기준·PPT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인공지능(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을 핵심 원칙으로 한 종합 안내서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

를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공동체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도입편, 활용편, 지원자료로 구성된다. 도입편에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의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 '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범용·교육용 AI 구분, 할루시네이션·과외존·개인정보 유출 등 7대 위험 요소 대응 방안, 초·중·고 발달 단계별 명확한 도입 원칙을 담았다.

활용편은 학교급(초·중·고)과 교육 주

체(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 실천 가이드를 제공한다. 모든 활용 과정에 '활용 전(준비)-중(검증)-후(성찰)'의 흐름을 적용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으며, 수업·평가·과제 등 실제 교육 맥락별 권장 사항과 주의 사항, 과정 중심의 학문적 논리를 명확히 안내한다.

지원자료로는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한 각종 서식과 함께, 교사가 별도 제작 부담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사전 교육용 PPT를 제공한다. 또한 sen GPT와 연계한 가이드라인 전용 챗봇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의정부, 교외선 '가능역' 신설 국토부 승인

타당성 검증 후속 절차 돌입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정문 인근에 추진 중인 교외선 '가능역(가칭)' 신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의정부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 3차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이행의 법적,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정비됐다는 데 의

미가 있으며, 역사 신설을 위해 예산 확보,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설 부지 일대 CRC 개발 등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 시기와 운행 열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관계기관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과 시 예산 반영을 위한 투자심사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유통업계 노조, 규제 완화 입장차 '기업정상화·건강권보호' 가치 충돌

유통법 개정 등 주요현안 이견  
소속 단체에 따라 소모전 양상  
"실효성 있는 중재안 마련 시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흠플러스 회생계획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유통업계 노동조합이 이견 차이를 보이며 갈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 목소리가 나뉘는 가운데, 국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가 관련 법안 및 회생계획안을 다루는 쉼벌도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은 지난 25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마트노조는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대안 없는 규제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상생 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등 현재 추진되는 규제 개선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26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상 규제

해소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마트 노조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마트노조 최성환 조합원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기존 직원들이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배송까지 허용된다면 노동 강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법안 철회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훼손 중단 등을 촉구했다.

두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규제 논의 당시에도 정반대의 입장을 냈다. 이마트노조가 대형마트 규제가 특정 업체를 거대 독점 기업으로 키웠다고 지적하자, 마트노조는 즉각 "사태의 주범은 투기 자본이며 노동조합이 사측의 논리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러한 갈등은 마트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인 반면, 이마트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양대 노총 간 노선 차이로 해석된다. 두 노조는 초심야 시간 배송 제한을 두고도 민주노총은 찬성을, 한국노총은 반대를 주장하며 충돌한 바 있다.

흠플러스 사태를 두고는 같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공적 기관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흠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은 유통 전문가나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업 회생 계획안을 두고도 일반 노조는 동의하는 반면, 마트노조는 점포 폐점과 분리 매각에 반대하며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흠플러스 회생 계획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노동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뤄야 할 국회와 법원, 정부 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여야 정치적 쉼벌에 노동계 의견 차이가 더해진 상황이다. 법원 역시 성공적인 기업 정상화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매각과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노조 간 시각차가 극명해 향후 회생 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생존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소모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재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GS25, '초BIG! 무쿠 점보 멜론 구미' 선보  
편의점 GS25가 일본 대표 종합 매장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며 공동 개발 상품을 선보인다. 모델이 '초BIG! 무쿠 점보 멜론 구미'를 상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GS25

## 나라셀라, '로저 구라트 더 로저 마크 II' 출시

플래그십 스파클링 와인... 240명 한정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스페인 프리미엄 까바 생산자 로저 구라트(Roger Goulart)의 플래그십 스파클링 와인 '로저 구라트 더 로저 마크 II 2017(Roger Goulart The Roger Mark II 2017·사진)'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뛰어난 품질의 포도를 수확한 해에만 생산되는 특별 한정 와인으로 전 세계 4500명만 생산됐다. 이 가운데 국내에는 단 240명만 출시되며 나라셀라 직영 매장인 '나라셀라 리저브'와 '와인픽스'에서 한정 판매된다.

이번 빈티지는 까바 전통 품종인 ▲차렐로(30%) ▲마카베오(20%) ▲빠레야



다(20%)에 ▲피노 누아(15%) ▲샤도네이(15%)를 블렌딩해 복합적인 아로마와 균형 잡힌 구조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연한 황금빛 컬러에 섬세한 기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효모 숙성에서 비롯된 구운 페이스트리 향과 말린 꽃 향이 인상적이다. 허몽, 숙성 치즈, 허브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 등 풍미가 깊은 음식과 뛰어난 페어링을 보이며, 단독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이다.

/신원선 기자

## 식품업계, 밀가루제품 평균 5% 추가 인하

CJ제일제당 "물가안정 기조 동참"  
파리바게뜨 11종 최대 1000원 인하

CJ제일제당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업소용(1월 초)·소비자용(2월 초)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 5.5% 내린데 이은 후속 조치다.

CJ제일제당측은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고객과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도 빵과 케이크 등 일부

제품 가격을 다음 달 13일부터 인하한다. 최근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가격 인하 대상은 총 11종이다. 빵류 6종은 완제품 권장가격 기준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내린다. 주요 품목은 단팥빵·소보루빵·슈크림빵(각 1600원→1500원), 홀그레인오트식빵(4200원→3990원), 3조각 카스테라(3500원→2990원), 프렌치 붓세(2500원→1500원) 등이다.

인기 캐릭터 케이크 5종도 가격을 낮춘다. 헛트릭스 골든 케이크는 3

만9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소다팝 케이크는 3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되는 등 최대 1만원 인하된다.

이와 함께 3월 중 1000원 가격의 가성비 크라상 신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도 업계 최저가 신메뉴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외식 가격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무신사 내달 롯데몰 은평점 개장

무신사가 인기 브랜드를 압도적인 할인가로 제안하는 오프라인 매장 무신사 아울렛 롯데몰 은평점을 오는 3월 5일 개장한다.

새 매장은 전용 면적 476평(1573㎡) 규모로 롯데몰 은평점 지하 1층에 들어선다. 구파발역 인근 핵심 상권의 이점을 살려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저가 상품 나열에서 벗어나 인기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전문관 전략에 집중할 것이 특징이다. 영,결즈, 가방 및 모자를 비롯해 미용, 명품, 중고 등 총 11개 전문 구역으로 일괄 쇼핑 환경을 꾸렸다. /손종욱 기자

## 신세계백, '프로젝트 세카이' 단독매장 운영

220여종 기획 상품 오프라인 공개

신세계백화점이 인기 모바일 리듬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피쳐링 하츠네 미쿠의 국내 최초 단독 임시 매장을 강남점 지하 1층 특별 행사장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장은 게임 세계관을 몰입감 있게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리듬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대형 캐릭터 벽화가 마련된 구역에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처음 공개되는 220여종의 기획 상품도 한자리에 모았다. 대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5일까지 '프로젝트 세카이' 임시매장을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

표 상품으로 무작위 캔 배지 26종(3500원), 무작위 아크릴 열쇠고리 26종(7000원), 캐릭터 쿠션 6종(2만원) 등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이마트, 라오스 '노브랜드 사판통점' 오픈

해외점포 최초 한국식 조리 코너 마련  
이마트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중심부에 노브랜드 4호점인 사판통점을 열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사판통점은 약 215평 규모로 라오스 내 노브랜드 매장 중 가장 크다. 사판통은 국제학교와 고급 주거지가 밀집해 구매력이 탄탄하고 소비 유행에 민감한 핵심 상권이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해외 점포 최초로 20평 규모의 한국식 즉석조리 코너

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불고 있는 한국 음식 열풍을 오프라인 체험으로 잇기 위해 매장 내에서 김밥, 떡볶이, 어묵, 라면 등 대표적인 한국 분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앞서 개장한 라오스 1~3호점은 계획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자류와 조미김, 즉석밥, 가정간편식 등이 매출을 이끌고 있으며, 4호점은 현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과자 진열 면적을 기존 점포보다 두 배로 늘렸다.

/손종욱 기자

## 롯데칠성음료 'L와인'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수입/판매하는 칠레산 데일리 와인 'L와인' 3종이 출시 10년여만에 패키지를 리뉴얼한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말 롯데칠성음료가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전용으로 출시한 L와인 3종(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샤르도네)은 출시 초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와 대중적인 스타일을 앞세워 와인 입문자와 가볍게 와인을 즐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수요를 형성했다.

'엘 카베르네 소비뇽'은 칠레 센트럴 밸리 산 카베르네 소비뇽 100% 와인으로 부드러운 탄닌감과 검붉은 과실향이

인상적이며, 스테이크, 치즈 등과 잘 어울린다. '엘 메를로'는 잘 익은 자두의 풍미와 풍부한 탄닌, 기분 좋은 정도의 산도가 긴 여운을 남기며 특히 파스타와 가금류 요리와 좋은 궁합을 보인다. '엘 샤르도네'는 열대 과일, 복숭아, 오렌지 계열의 풍미가 적절한 산도와 잘 어울리며 조개류, 생선과 같은 해산물 요리에 잘 어울린다.

롯데칠성음료는 '칠레의 전설(Legend of Chile)'라는 'L와인'의 브랜드 스토리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자 'L'의 크기와 굵기를 키우고 현대적 감각의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해 주목도와 차별성을 높이는 등 시인성을 개선했다. /신원선 기자

#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AI 활용 넓힌다... 효율·속도 경쟁

중외제약, 신약연구 플랫폼 도입  
팜젠사이언스-폴라리스AI MOU  
셀트리온, 2028년까지 AI도입 강화



연구원이 인공지능 활용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JW중외제약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 공식을 바꾸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국한됐던 AI 활용이 제조, 품질관리 등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전사적 도입에 속도를 낸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타겟 발굴부터 데이터 기반 설계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중외제약은 AI 기반 신약연구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를 적극 도입해 신약개발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제이웨이브는 단기간에 신약 후보물질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기전을 연구하는 데 쓰인다. 항암, 면역 등 다양한 질환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지속 창출해 왔다.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1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JW0061'도 대표적인 사례다. JW0061은 계열 내 최초 혁신신약 후보물질이다.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기전을 갖춰 남성, 여성 모두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개발되고 있다.

신생 바이오텍 파로스아이바이오도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확보한 물질에 대한 임상연구에 돌입한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지난달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 'PHI-501' 임상1상 첫 환자 등록을 완료해 본격 투약을 시작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PHI-101'은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1상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재발성 난소암

으로 적응증을 확장한 국내 임상 1상을 추가 진행 중이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모두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독자 구축한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해 확보한 물질이다.

또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적응증 확장 모델 '딤리콧'도 자체 개발했다. 난치성 대장암, 악성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난치성 고형암으로 적응증 확장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의 경우, 지난 13일 폴라리스AI파마와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팜젠사이언스는 신약 및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폴라리스AI파마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반 원료의약품(API) 합성·공정 기술력을 통해 연구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제조 영역에서도 AI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까지의 3개년 사업 로드맵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강화한다고 강조해 왔다. 올해부

터 임상, 생산, 판매 등 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AI 기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의료 현장에서 확인된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협회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8%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82%는 AI 도입 이후 업무 흐름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활용 경험 분야는 영상판독이 83%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활용 목적은 진단 68%, 선별 51% 순이었다.

국내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인공지능 도입은 이미 필수 성장 요소"라며 "문서 작성, 시장 조사 등 기본 업무에서부터 도입해도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점차 고도화해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nlee236@metroseoul.co.kr

## '프리바이오틱 추출물' 염증완화 효과 확인

hy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장 상피 장벽 강화 사례 나타나

hy가 '프리바이오틱 복합 추출물(PME, Prebiotic Mixture Extract)'의 장 염증 완화 및 장벽 보호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PME는 녹두, 팥, 회향을 최적 비율로 혼합 추출한 식물 유래 소재다. 프리바이오틱 성분을 함유해 섭취 시 장 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한다.

PME는 염증을 유도한 인간 대장 상피세포에서 대표적 염증성 지표 물질인

사이토카인(TNF- $\alpha$ , IL-1 $\beta$ )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동시에 장벽의 물리적 결함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Claudin-1, Occludin) 발현을 증가시켜 장 상피 장벽 강화 효과를 확인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장염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투여한 결과 ▲대장 길이 감소 억제 ▲장 투과성 개선 ▲혈청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 등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해당 소재에 함유된 항산화·항염증 성분 '비타민(Vitexin)'이 장 내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성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 가능성도 확인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 섭취 시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은 증가한 반면, 염증과 관련된 유해균의 비중은 낮아졌다.

김용태 hy 프로바이오틱스팀장은 "이번 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소재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다"며 "hy가 축적해 온 균주 및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인도네시아 공략

판매 시작... 의료진 대상 교육도

대웅그룹의 특수관계사인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인도네시아 미용의료 시장을 공략한다.

시지바이오는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 디클래시의 에스테틱 필러 '디클래시 CaHA(사진)'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동시에 유도하는 CaHA(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주성분으로 한다.

특히 입자 내부에 층층이 미세공이 배열된 특허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주입 후 겔 성분이 흡수된 후 CaHA 입자가 천천히 분해되며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점진적인 기전은 장기적인 피부 재생 효과로 이어진다.

또 약 30 $\mu$ m의 균일한 입자와 매끄러운 표면 설계를 통해 시술 후 퍼짐과 염증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시술 결과를 구현했다.

이와 관련 시지바이오인도네시아 현지 의료진을 대상

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국내 본사에서 트레이너 과정을 이수한 현지 강사진이 현지 의료진에게 강의 및 라이브 시연을 진행한 바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디클래시 CaHA는 기존 필러와는 차별화된 작용기전과 임상 효용을 갖춘 프리미엄 솔루션"이라며 "인도네시아 고객이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의료진 교육과 기술 확산에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이승재 생산본부장 선임

광동제약은 이승재 상무이사(사진)를 신임 생산본부장으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증된 내부 인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승재 신임 생산본부장은 품질 최우선 원칙 아래 생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제품군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를 취득했다. 동화약품 연구원으로 시작해 한국애보트, 휴메디스 등 국내외 주요 제약사에서 품질보증 총괄을 역임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다.



/이세경 기자 seilee@



풀무원헬스케어와 KGC인삼공사의 전략적 MOU 체결식을 마치고 풀무원헬스케어 김진홍 대표(오른쪽 4번째), KGC인삼공사 임왕섭 대표(왼쪽 4번째)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풀무원

## 풀무원헬스케어, KGC인삼공사와 MOU

데이터 연계 시니어 시장 공동 분석

풀무원헬스케어는 KGC인삼공사와 지난 25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사가 협업하여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여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사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전문 기업'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구독 채널을 활용한 혈당관리 프로그램 패키지 판매로 혈당관리 시장을 창출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또 양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시니어 시장을 공동으로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풀무원의 개인 맞춤형 식이 전문 헬스케어 플랫폼 '디자인밀'은 KGC인삼공사의 홍삼 원료를 활용한 시니어 타겟의 프리미엄 건강 식단을 개발하여 시니어 시장을 확장하는 데도 적극 협력해 나간다.

/신원선 기자

## SK케미칼, '조인스정' 매출 7000억 돌파

국내 개발 천연물 치료제 최초

SK케미칼은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이 출시 이후 누적 매출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의 누적 매출로는 최초 성과다. 신약 자체 개발 후 임상 등 과정을 거쳐 허가된 의약품 전체를 기준으로도 처음이다.

이번 7000억원 달성은 2024년 6000억원 돌파 후 2년 만이다.

연간 매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조인스는 2021년 454억원, 2022년 472억원, 2023년 483억원, 2024년 532억원, 2025년 595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연 평균 매출은 약 507억원으로,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조인스정은 2002년부터 골관절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3년간 처방돼 왔다.

/이청하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신동빈 회장, 카이스트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받아

〈롯데그룹〉

책임경영, 산업전환, 가치창출 공로  
롯데그룹, 140억 발전기금 출연해  
연구개발·디자인센터 준공 앞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신 회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교수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축으로 삼아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구체화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 기반 시설 조성 및 융합 연구 체계 구축에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이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롯데

크게 기여해 왔다. 실제 롯데그룹은 2022년 14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출연해 롯데-카이스트 연구개발센터와 롯데-카이스트 디자인센터를 짓고 있으며, 각각 오는 5월과 9월 준공을 앞두

고 있다. 연구개발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소재 및 에너지 등을 주제로 전공을 초월한 융합 연구 집적

지로 운영된다. 디자인센터에서는 사회 공헌,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용자 기반 등 포괄적인 기획 연구를 수행한다. 두 기관은 연구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실행형 산학협력 체계로 작동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동반자로서 우리의 동행이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광형카이스트 총장은 “과학기술과 산업, 사회적 가치를 연결해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인물”이라며 “연구 기반 시설 확충과 융합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HD현대일렉트릭, 안전보건 상생 우수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전력사업본부장(오른쪽)과 HD현대일렉트릭 협력사 세마하이텍 박종달 대표(왼쪽)가 시상식에서 수상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 LS머트리얼즈, ESG 평가 ‘실버’ 등급

LS머트리얼즈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버 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상위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등급 획득으로 LS머트리얼즈의 글로벌 우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S머트리얼즈

## 한화오션, ‘명장’ 제도 도입... 2인 선정

‘제1기 명장 임명식’ 진행  
조수연·박순복 기원 명장 선발  
퍼플로열 안전모, 사무실 등 지원



지난 25일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한화오션 제1기 명장 임명식이 열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가운데)와 명장으로 선정된 박순복 기원(왼쪽), 조수연 기원(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생산직 최고 기술자에게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1기 명장 2인을 선정했다. 회사는 이번 명장 선정 계기로 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보상·명예·성장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제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25일 저녁 거제 벨버디어에서 ‘한화오션 제1기 명장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명된 명장은 조수연 기원(상선사업부)과 박순복 기원(특수선사업부)이다. 임명식에는 가족들도 함께 초청됐다.

탐재2팀 조수연 기원은 1996년 입사해 무래일 수직·수평 EGW(전기가스용접) 용접 장치를 개발하는 등 8건의 공정 개선을 이뤄냈으며, 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 조 기원이 개발한 무래일 용접 장치는 지난 2024년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포함됐다.

1989년 입사한 특수선선체팀 박순복 기원은 생산성을 50% 향상시킨 자동 곡직기 개발과 특수선 용접 자동화 기술 적용 등 6건의 공정을 개선했다. 또한 13건의 작업 여건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제1기 명장들은 선박 건조 핵심 공정 전반에서 현장 난제를 해결하고 표준 작업을 정립해 온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다면 평가와 대한민국 명장 초청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역량을 검증받았다.

명장에게는 단계적인 보상과 지원이 제공된다. 최초 선발 시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실적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회사는 명예를 상징하는 ‘퍼플로열(Purple Royal)’ 색 안전모와 개인 사무실, 개인 업무용 차량 등을 지원한다.

임기 종료 후에는 실적과 공헌을 기록한 동판이 사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며, 정년 이후에는 기술지도강사로 근무할 기회도 부여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아트 전시물 기증

시각장애인 전시작품 관람 도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람을 돕기 위해 포스아트(PosArt) 기반의 ‘촉각 전시물’을 제작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아트는 특수 철강재 위에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포스코그룹의 프리미엄 컬러강판이다. 잉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3D 적층 기술을 적용해 기존 컬러강판 대비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그룹의 프리미엄 컬러강판인 포스아트 기술을 접목해,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줄이는 배리어프리 전시에 힘을 보탤다.

재단은 포스아트 기술을 예술작품에 적용하면 섬세한 입체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작품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제작은 포스코그룹의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가 전담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스아트를 활용해 제작·기증한 시설물은 ▲서화실 입구 대형 연출벽 ▲대표 서화를 손끝으로 감상하는 촉각테이블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4개의 쇼케이스 등 총 3개 종류다

‘옛 비석의 벽’으로 조성된 대형 연출벽은 옛 비석의 글씨를 포스아트로 재현해 우리 서예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테이블에는 점자를 포함한 작품 설명을 눈높이에 맞춰 배치했으며, 3D 적층 공법을 적용한 유물 촉각 패널을 통해 거장들의 필치와 붓의 미세한 흐름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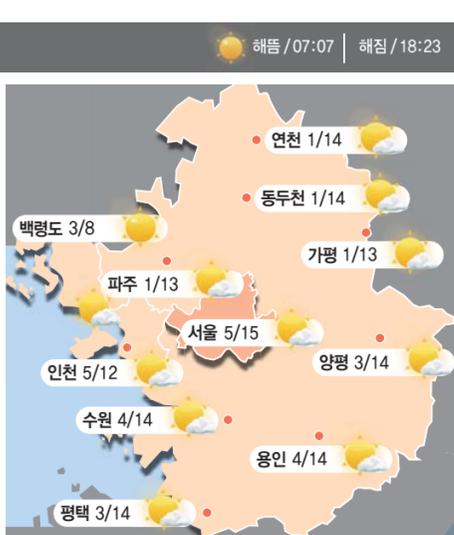
/유혜은 기자

## 오늘의 날씨

2월 27일(금)  
음력: 1월 11일

수도권 날씨  
5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중진공-상명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나서

K-Work플랫폼 활용해  
AI·반도체 취업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명대학교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진공은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상명대 천안캠퍼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상명대와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인 중진공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 우수 인재-지역 유망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일자리매칭플랫폼인 기업인력애로센터와 K-Work플랫폼을 활용해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들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HLB제약, ‘韓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HLB제약은 지난 25일 열린 ‘2026 제2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 박재형 대표이사(가운데)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김만규 부사장(오른쪽)이 ‘파이오니아 상’, 이용우 인사총무 총괄 이사(왼쪽)가 ‘혁신리더상’을 각각 수상했다.

/HLB제약



## NH농협은행, 1일사 금융교육 금감원장상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2025년 1사1교 금융교육’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오른쪽)이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 인사

- ◆교육부 ◇부이사관 발령 ▲국제교육정책 담당과 안우환 ▲교육부(위성탄한국교육원 파견)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신미경 ◇서기관 발령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구본익

## 부음

- ▲강정애씨 별세, 한승양(한마당 대표이사)·형준(서울보통계리법인 상무)·수일(NH아문디자인산업용 상무)씨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28일 오전 5시15분, 장지 전북 군산 선영. 02-3410-3151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깔레야 깔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피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김승호의  
시선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기업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코스피지수가 질주하며 6000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주가 상승의 열매는 대부분 개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수 많은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은행 문턱은 높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들은 은행 이용시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담보 요구 강화 등 해묵은 내용을 여전한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돈 빌리기 어려운 틈을 타 일부에선 공공기관이나 관계자를 사칭

하는 대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도 곳곳에서 뱀처럼 파리를 틀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잘 보이지도 않는 지뢰밭까지 피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의 숙명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는 한국 경제에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상생’, ‘모두의 성장’과 같은 단어들도 정권마다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초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생태계”라면서 풀밭, 메뚜기, 토끼, 호랑이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다.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지방, 청년 세대에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짓수는 중앙정부와 지방단체를 포함해 1500개가 훌쩍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낙수효과, 분수효과를 위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갖가지 모수(?)를 내놓은 결과다.

정책이 이렇게 많고 촘촘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여전하다.

전체 기업수의 99%인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2022년)은 33.7%다. 생산액 비중

은 31.5%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기업이 기여했다. 수출도 소수의 대기업이 8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17.7%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감을 주고 받는 원하청 수직 거래구조가 우리 경제에 뿌리깊게 박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극화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 월급은 평균 607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58% 수준인 354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까이 있는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먼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희망이 보이지만(성장이) 일부 대기업에 몰려 있다. 골고루 잘 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젠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를 따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효과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지자체는 주변에 널려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효과도 없는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지원책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bada@metroseoul.co.kr

# 라이브니까 환불 불가?... SNS 판매의 무책임



기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라이브커머스는 분명 유통의 진화다. 실시간 소통, 즉각 할인, 한정수량이라는 요소는 소비자에게 ‘현장감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문제는 일부 SNS 판매자들에게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기반 개인 방송 판매에서 그 폐해가 두드러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누적 148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 1위는 환불·반품 거부(35.3%)다. “라이브 특가라 환불 불가”, “방송 중 구매

는 예외” 같은 안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시간 판매라는 형식은 법적 청약철회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 상당수 판매자 안내 자체가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방송 중 진행자는 “전문인 인증”, “부작용 없음”, “시술급 효과” 같은 과장되거나 허위 표현을 쏟아낸다.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는 “개인 의견이었다”고 물러선다. 플랫폼은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판매는 하되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SNS 기반 라이브 판매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구조로, 홈쇼핑처럼 상품이나 표현에 대한 사전 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방송 편성 심사나 효능 표현 검증 같은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영역과 달리, 개인 판매 중심 라이브 시장은 사후 신고와 자체 정책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 플랫폼은 방송 노출과 결제 시스템 등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며 거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에 머물러 분쟁 발생 시 1차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피해 역시 반복·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 혁신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지속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 설계다. 플랫폼과 판매자가 영향력만 누리고 책임은 피하는 구조를 방지한다면, 라이브커머스는 ‘미래유통’이 아니라 ‘무책임 유통’으로 기억될 것이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2월 27일 (음 1월 1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본인의 신념을 믿고 행동하세요. 60년생 성실하게 추진하던 일에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72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4년생 이성운이 길하니 먼저 다가가 보세요.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51년생 재물을 얻지만 손해도 있습니다. 63년생 낱알 수확 겸손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75년생 거대한 외출은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87년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위의 조언을 들으세요.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54년생 여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66년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8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내 것을 지키세요. 90년생 능력 이상의 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0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82년생 빛 본의 의견을 들으면 길합니다. 94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하던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립니다.



# 김상회의四季 AI로 보는 사주

스마트폰 비서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까지, AI(인공지능)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다. 필자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길흉화복을 점쳤던 사주팔자의 원리를 빌려와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풀어봤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AI는 나를 도와주고 편안한 길로 이끌어주는 귀인이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 귀인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벗어나고 복을 얻는다. AI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하나 쓰려면 온갖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뒤지고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했다. 이제는 AI에게 묻기만 하면 된다.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법률문제도 척척 알려준다. 몸이 아플 때 필요한 건강 정보도 바로 알려 주고 저녁 메뉴 레시피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매일 사람을 피곤하게 하던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AI는 힘든 일에 시달리는 나를 도와준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중심을 흐드는 살쥔이다. AI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의존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까지 AI에게 맡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면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하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가 사회를 흐드는 것 역시 사주에서 말하는 살처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조화를 강조한다. AI도 마찬가지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면 귀인이 되지만 AI에 끌려다니면 나를 흔들게 된다. AI라는 엄청난 변화의 기운이 귀인이 될 것인지 살이 될 것인지는 미래에 달려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1					9
	2	8		3	4			
	1							6
	6	5	9					2
5			3					7
	9	4	7					5
	3							8
		7	2		6	9		
4				9				2

		4		2	5	8		
		5			8			7
	7							
		7	2	3	9			5
		8						2
4				8	5	1	6	
								6
2				4				3
		3	5	6				7

2	2	1	8	6	8	9	9	7
8	7	6	9	9	2	2	8	1
9	8	9	7	2	1	6	8	2
1	9	9	2	7	7	8	6	8
2	6	1	8	9	7	2	9	
7	2	8	6	8	5	1	9	2
8	9	2	7	6	9	1	8	
9	1	7	8	9	8	2	2	6
6	8	2	9	1	2	8	7	9

1	7	2	2	9	9	8	8	6
8	6	8	2	1	7	9	9	2
2	9	9	8	8	6	1	7	2
8	2	9	1	9	8	6	2	7
6	1	2	7	2	9	8	8	9
9	8	7	6	8	2	2	1	9
7	9	1	9	6	8	2	2	8
2	2	6	8	7	1	9	9	8
9	8	8	9	2	2	7	6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내 입맛에 딱 맞는 한잔... 글라스 와인 '썸마카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3

“각자 지금까지 드신 와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골라주세요. 한 잔 더 드립니다.”

어색한 듯 친숙한 멘트다. 맞다. 오마카세에서 셰프가 앵콜시를 주문받듯 소믈리에가 마지막 한 잔으로 앵콜와인을 따라낸다.

일식에 오마카세가 있고, 정겨운 노포에 '이모카세'가 있다면 우리 한국 와인 바엔 '썸마카세'가 있다.

원래 오마카세는 '맡긴다'는 의미의 일본어 '오마카세루(任せる)'에서 유래한 말이다. 셰프에게 메뉴 선택을 온전히 맡기는 식사 방식이다. 그러니 썸마카세는 소믈리에가 그날그날 곁들일 음식이나 고객의 취향에 따라 글라스 와인을 맞춤형으로 내놓는 와인판 오마카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와인바 사브서울은 원하는 가격대와 취향을 말하면 소믈리에가 글라스 와인(By the glass)을 코스로 구성해주는 썸마카세를 선보였다. 사브서울 뿐 아니라 와인 수입사 아



사브서울 이주혁 헤드 소믈리에가 썸마카세 서비스를 위해 고객에게 와인 취향을 묻고 있다.

영FBC는 무드서울과 더페어링 등 직영 매장을 중심으로 글라스 와인 캠페인인 '한 잔의 서울(A Glass of Seoul)'을 진행 중이며, 한 병이 아닌 한 잔 단위로 와인을 파는 글라스 와인보다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글라스 와인은 이전에도 있었다. 쉽게는 어디서든 가볍게 한 잔 시킬 수 있는 하우스 와인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와인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팬데믹 이후 와인 열풍이 불면서 일부 매장에서 와인 디스펜서를 설치해놓고 글라스 와인을 선보였지만 비싼 기계값과 함께 차지하는 공간까지 감안하면 제한



글라스 와인 코사인 썸마카세에서 선보인 와인들.

/안상미 기자

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글라스 와인은 선택권이 넓어진 것도 물론 자체가 와인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 혹은 문화가 되었다. 취할 때까지 마시는게 아니라 즐겁게 한 두 잔, 같은 가격이라면 적당한 와인 한 병보다 기억에 남을 단 한 잔을 마시겠다는 그런 문화 말이다.

여기에 신기술은 글라스 와인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시켰다. 와인 보존시스템 코라빈(Coravin)이다. 마개 코르크에 아주 얇은 바늘을 찔러 넣어 와인을 따라낸다. 천연 코르크에서 미세한 바늘구멍은 저절로 막히고, 와인이 있던

공간은 질소가스가 들어가 산화되지 않는다. 와인병 오픈 자체를 안하고 공기 접촉도 없으니 몇 주,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 와인의 맛이 변할지 않다. 일반 와인 뿐만 아니라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도 최대 4주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브서울의 경우 주문가능한 글라스 와인만 무려 300종이다. 관련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최다 수준이다. 홍콩이나 미국에서 글라스 와인을 전면으로 내세운 대형 와인바도 150종 이상(150+ by the glass)이 전

부다. 맞춤형 글라스 와인 코사인 썸마카세도 방대한 리스트 덕분에 가능했다. 3만 9000원부터 시작되는 가격대마다 5잔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샴페인 애호가라고 하면 샴페인을 다양하게 3잔 정도 마시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한 잔씩 내놓는 식이다.

오마카세 처럼 썸마카세 역시 소믈리에와의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사브서울의 이주혁 헤드 소믈리에 "와인은 고객별로 선호하는 와인 취향과 함께 주문한 음식에 맞춰 선택한다"며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화이트 와인을 선호하는 고객이라면 오크 숙성 등 좀 더 무게감 있는 와인으로 페어링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smahn1@metroseoul.co.kr



와인을 오픈하지 않고 남은 와인을 보존하는 코라빈 시스템으로 와인을 따르고 있다.

/이영FBC

## 문화 단신

###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온라인 생중계

카카오창작재단 타이틀 스폰서 멜론 모바일 앱·유튜브 채널 중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밤 8시부터 국내 문화 콘텐츠 창작자를 지원하는 카카오창작재단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을 멜론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위드 카카오창작재단'으로 진행된다. 앞서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등 종합 부문과 장르 부문을 포함해 총 26개 부문의 후보가 공개된 바 있다.

시상식은 멜론 모바일 앱과 유튜브브 내 멜론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시상식 종료 직후에는 수상작을 모은 플레이리스트가 멜론에서 공개되며, 시상식 비하인드 콘텐츠를 담은 매거진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대중음악상은 2004년 시작된 국내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평론가와 음악 전문 기자, 방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후보와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중성과 음악성을 함께 평가하며 장르와 상업성의 경계를 넘어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조명해왔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이번 시상식과 연계해 신인상 후보를 대상으로 '카카오창작재단&멜론 뮤직 커넥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사를 거쳐 신인상 수상자와 후보자에게는 앨범 제작비를 지원하고, 발매 이후에는 멜론을 통한 홍보도 이어질 예정이다.

카카오창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창작자 지원과 음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디 음악 페스티벌 후원과 신인 아티스트 지원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메가박스, '메가온리' 3월 라인업 공개... 투어스 콘서트 등 개봉

7일 라이즈 월드 투어 단독 생중계

메가박스가 오직 메가박스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단독 콘텐츠 브랜드 '메가온리(MEGA ONLY)'의 3월 라인업을 공개했다.

먼저, 4일에는 '주술회전', '체인소 맨' 등을 제작한 MAPPA가 선보이는 '좀비 랜드 사가: 유메긴가 파라다이스'가 개봉한다. 좀비 아이돌 '프랑슈슈'가 우주적 위협에 맞서는 전대미문의 좀비 아이돌 SF 히어로 무비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 관객상을 휩쓸며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찬사를 얻은 이탈리아 영화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도 4일 개봉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투표가 임박한 1946년 이탈리아에서 동화보다 아름다운 엔딩을 꿈꾼 '델리아'의 발칙한 시크릿 플랜 무비다.

그룹 TWS(투어스)의 첫 번째 VR 콘서트 '투어스 브이알 콘서트 : 러쉬로드'은 4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단독 개봉한다. TWS 특유의 청량한 에너지와 자유롭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입체적인 스테이징과 감각적인 카메라 워

크, 그리고 현장감을 극대화한 사운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7일에는 전 세계 21개 도시를 매료시킨 라이즈(RIIZE)의 첫 월드 투어 서울 피날레 콘서트를 국내 극장 단독으로 생중계하고, 13일에는 메가박스 단독 개봉작 최고 흥행에 빛나는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닥트 어택'이 개봉 1주년을 맞이해 돌비 포맷으로 부활한다.

25일에는 오스카 수상자 이안 감독이 베스트 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시각적 절작 '라이프 오브 파이'가 재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에이앤이코리아, '네고왕' 새 시즌 MC 장윤정 발탁

새로운 '네고왕' 3월말 공개 예정

에이앤이코리아 달라스튜디오가 웹예능 '네고왕'의 새로운 MC로 장윤정(사진)을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

'네고왕'은 소비자 의견을 모아 기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의 웹예능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그동안 황광희, 장영란,



딘딘, 슬리피, 흥현희, 김원훈 등이 MC를 맡았으며 누적 조회수 4억3000만 회를 기록했다.

새 시즌 MC로 합류한 장윤정은 대중적 인지도와 친숙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을 통

해 시청자 타겟을 전 세대로 확대하고, 국내외 시청자를 아우르는 콘텐츠 구성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제작사 측은 장윤정의 안정적인 진행 능력과 소통 방식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이 진행하는 새로운 '네고왕'은 오는 3월 말 달라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서 "한 달 안에 전쟁 끝나길 바란다"  
▲ 젤렌스키, "정상회담만이 문제 해결하고 전쟁 끝낼 수 있어" /사진 뉴시스

▲ 美 국무부 "이란 ICBM 개발 추진 큰 문제... 외교 해결 길 열려 있어"  
▲ 마크롱, 다음 달 2일 '佛 핵 억지력 유럽 확대' 구상 공개

▲ 호주 정부, 미-이란 전쟁우려 이스라엘 주재원 가족 철수 명령  
▲ 네덜란드 국적항공사 KLM, 3월부터 이스라엘 행 전면 중단



유통업계 노조  
규제완화  
입장차  
니



Life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시활용 넓힌다  
L2



# 생산적금융 300조 투입... 산업체질 선도하는 '금융파트너'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 IBK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생산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2026년 경영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을 선도하는 금융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금리 장기화, 내수 둔화가 맞물리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복합 위기를 단순한 경기 대응 차원이 아닌 산업 경쟁력 재편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할 방침이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의 복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IBK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0조 승부수...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기업은행은 올해 생산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산업과 혁신기업 지원 ▲여신심사 체계 혁신 ▲지역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또 2026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첨단·혁신 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총 2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이는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120조원 및 창업기업 100조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신심사 체계로 자금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적 공정금융 실현에도 힘쓴다. 5극3특 체제에 맞춘 지역산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7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

### IBK기업은행 '30-300 프로젝트'

중소기업·소상공인	벤처·투자·인프라	소비자중심·신뢰	자회사(IBK캐피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혁신산업 육성</li> <li>창업·벤처기업성장지원</li> <li>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li> <li>소상공인 지원 강화</li> </ul> <p>250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전략산업 투자 지원</li> <li>인프라금융 지원</li> <li>K-컬처·콘텐츠 육성</li> <li>정책펀드 참여</li> </ul> <p>20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용금융 강화</li> <li>내부통제 강화</li> </ul> <p>3.3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문별 시너지 협력</li> <li>중기·소상공인 지원</li> <li>모험자본 공급 확대</li> <li>소비자 중심 포용금융, 신뢰제고 추진</li> </ul> <p>34.5조원</p>

자료/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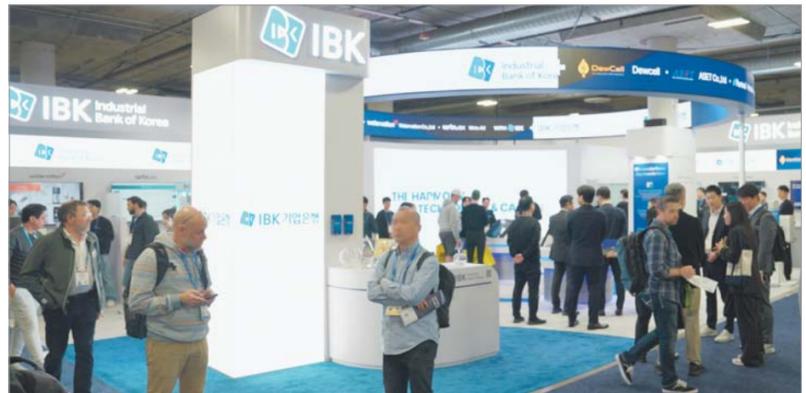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300조 규모 '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신산업·혁신기업, 지역산업 등 지원

5년간 中企·소상공인 첨단산업 육성  
5극3특체제 맞춰 지역 균형발전 앞장

주계열사 투입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기업 성장단계 맞춰 금융효과 극대화  
대출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조직체계 손질, 여신 심사조직 개편  
내부통제, 보안 강화... 리스크 관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관람객들이 IBK혁신관을 둘러보고 있다. /IBK기업은행

5극3특체제는 수도권 1극 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여 지방 주도의 다극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국가 전략이다.

#### ◆ TF 신설... 실행체계 구축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계획을 성과로 이루기 위해 IBK금융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해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은행의 여신 기능과 증권·자산운용·벤처투자의 역량을 결합해 대출과 투

자, 펀드 조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 지분 투자, 펀드 출자 등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일 금융상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대출-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그룹 차원의 자본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조직체계도 손질했다. 부행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데스크포스(TF)'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

여신 심사 조직도 개편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 부서 기능을 강화했다. 또 담보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여신심사체계를 고도화한다.

책무구조도에 따라 관리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추진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장민영 행장은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고객의 신뢰"라며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기업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

단위: 조원, 누적잔액 기준



#### 생산적 금융 전략

- 현장경험 중심 부행장, 본부장 유관부서 재배치
- AI기반 산업별 특화 지표와 미래성장성 반영한 지원 심사
- IBK 계열사 역량은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운영
-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 상생도약펀드' 마련
- 신규자금·금리완충 채무조정 등 유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구성

자료/은행연합회, IBK기업은행

##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김혜성, WBC 대표팀 합류 앞두고 나란히 멀티히트 /사진 뉴스시스  
▲오타니도 합류한다...완전체 가까워지는 WBC 일본 야구 대표팀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죽기 전에 월드컵 우승 한번 봤으면"  
▲'흥부 듀오' 계속...로스앤젤레스FC, 손흥민 파트너 부양가와 연장 계약

▲'사상 첫 외국인 감독' 마졸스호, 대만 상대로 농구 월드컵 예선 연습 도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청년 예체능 인재 양성 본격